AUG 2 1937

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光(一月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河邊部隊、長辛店占領
天津支那陣地猛攻擊
通州保安隊一部反亂、居留民死傷多數
各社從軍記者消息頓絶

【天津三十日發至急報同盟】三十日午後九時半駐屯軍司令部發表 ‖ 河邊部隊는 今日午後三時長辛店과 其附近高地를 占領하엿다

【天津三十一日發同盟】午前四時半頃 我軍은支那軍隊陣地에 向하야 第一攻擊을 開始한바 同五時頃에는 砲聲이 殷殷하야 全市를 震撼하고 잇다

【北平三十日發同盟】 通州城內는 二十九日保安隊一部의 反亂으로 我居留民에게 相當한死傷을내인 模樣인데 아직確報는업다 그리고 同地에잇든 各社從軍記者도 昨日來 거이消息이 끈처安否가 念慮된다

支那軍續續退却中

【天津卅一日發同盟】支那駐屯軍發表=我軍各部隊의 猛烈한攻擊에 支那軍은 各地에서 大打擊을받고潰滅、潰走하야 目下永定河左岸에는 敵의大部隊가업다 二、卅八師百十二旅長 黃維綱은 馬村方面에退却中(前報黃維綱은讓報) 三、三十八師百廿旅二百廿三團은 潮宗橋以西의地區에 그리고二百卅四團은 天津東南万小站方面에移動中이다

北支事變畫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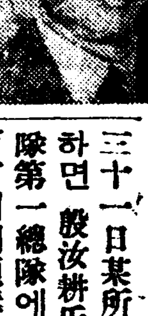
上은 北平에入城하랴하야 ○○을 出發하는 ○○隊、下는 宮崎水兵事件으로 騷然한上海北四川路에서 神經過敏한 支那人이避難移搬을하는光景

阮元武不抵抗을通告

【北平卅日發同盟】北平에 잇는 阮元武의 獨立第卅九旅는 卅日午後五時 今井武官을 通하야 我方에 戰意업다는旨를 申請하엿스므로 我方은 適當한 處置를 取하기로 決定하엿다

殷汝耕氏拉致!
保安隊第一總隊에게

【東京電話同盟】陸軍省許可濟



三十一日某所着電에依하면 殷汝耕氏는 保安隊第一總隊에게 北平西方의門頭溝에拉致되엿다는 說이잇다 (寫眞은殷汝耕氏)

永定河左岸支那軍 大體掃蕩完了

【天津三十一日發同盟】三十一日朝까지의 情報에依하면 永定河左岸地區의 敵部隊는 大體로 掃蕩을 完了하엿다

一、이미全般的으로보아 ...

一、獨立第二十二旅團李致遠은殘兵을引率하고 津浦線馬廠(天津西南方)附近에 退却하엿다

一、第三十八師副師長李文田은三十日夕刻부터 殘兵을 糾合하야가지고馬廠附近에到着하엿다 그리고 同地의 第百十二旅長黃維綱은 馬廠에向하야退却中이다

我軍、軍橋를架橋

【天津三十日發同盟】佛國工部局이管理하는 萬國橋는 武裝兵의通過를 拒否하게되엿스므로 我軍은 今朝二時半頃으로부터 白河의 軍橋를架橋하엿다 이架橋作業은 日本租界로부터 伊國租界接近地點에이르는 約二百米의 거리로 처음에는 我勇敢한 一靑年(氏名不詳)이 뛰여드럿든바 對岸으로부터 盛히射擊되엿스나 我援軍에 依하야 巧妙하게 濁流를헤여건너갓다 이成功으로 架橋作業者는 勇氣百倍하야 午前五時에이르러 架橋作業을完了하엿다 作業中不絶히 不法射擊한 保安隊는 徒歩로追擊하야 萬國橋左岸附近의 商品檢驗局、警察分局、郵便局 其他主要建物을 占據하고 二十八日 午前二時頃 東站에 籠城한日本側은 各機關團體等과 完全히 連絡을 取하엿다

東站附近一帶의 主要官公衙를 始하야 一部民家等에는 數十의 日章旗가 盛히 날리고잇다 그리고 軍橋는 一般日本人에게도 使用을 許可하게 되엿는데 危險도적어 크게 利用될것이다

日本租界發砲의 支那敗殘兵掃蕩

【天津三十日發同盟】日本租界特別第三區海光寺南方 南開女子中學校附近에 잇는 支那敗殘兵은日本租界에發砲하는一方 陣地를 構築하고잇슴으로 我軍에서는 三十日午後二時半부터 이를掃蕩하고 我空軍도이에 呼應하야 爆擊을 敢行하엿는데 漸次掃蕩의實을擧하고잇다

南部隊存在兵掃蕩

【北平三十日發至急報同盟】北平城外西山의 山奧에 潰走한 第三十七師의 殘存兵에對해 三十日朝 我鈴木 酒井兩部隊는 이를 包圍하고 大砲 機關銃의猛射를 敢行하야 正午頃 드디여 이를 四散潰滅시켯다 殘餘之兵은 겨우長辛店方面으로 潰走한模樣이다

一千名의保安隊를 北平에서武裝解除
一時通州를混亂케햇든反亂部隊
高木部隊의猛擊奏効

【北平三十一日發同盟】一時 通州를混亂케한 冀東反亂保安隊는 北平城內에 遁入하려하엿스나 城門이 閉鎖되어 뜻을일우지못하고 安定門外에서 全然 進退維谷에 빠저 三十日夜 六百、三十一日朝四百 計一千의 保安隊는 我軍에게 武裝解除되엿다

【天津三十一日發同盟】今朝五時지나서부터 我高木部隊는 總站方面에 進出하야 公大第七廠(鐘紡의天津第二工場總站의東南)附近에 蟠居한 支那軍에 猛烈한 砲擊을 加하야 大打擊을 與한바 敵은 四散하엿다

... 等을 完全히 攻擊하엿다 一發의 虛彈도업시 모두目的地에서 炸裂한것은 痛快한일이다 東站에서 暴戾히 橫行하던支那軍은 我空爆에 完全히 意氣沮喪되엿다

北平地方自治會
三十日부터執務開始

【北平三十日發同盟】北平地方自治會는 北平名士江朝宗을 首席으로하야 商會銀行界의 代表冷家驥、鄒泉蓀地方自治維持代表呂均其他文化團體代表、周履安諸氏를委員으로 三十日에 成立되엿다 北平地方自治會는 爲先 內部를整理하야 歷辦公署를 本城으로하고 卽日 執務를 開始하야 治安維持及 時局의 善後處置에當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常務委員은 江朝宗、冷家驥、鄒泉蓀、呂均、周履安、良弼等 六氏이나 必要에 應하야 二、三名增員할터이다

大賀參謀空爆威力談

【天津三十日發同盟】廊坊의空爆을비롯하야 南苑通州等의 空爆附近의 支那側陣地를 爆擊하고 殲滅的打擊을 與하야 戰線을有利하게한 我空軍의 活動은가장 볼만한것이 잇는데 右에關하야 ○○隊大賀參謀는 三十日午後六時에左와如히말하엿다

南苑 西苑에서 敵大部隊의 本據를空爆한 我部隊는 二十九日天津日本租界를 攻擊한 支那軍陣地 市政府 警備司令部 公安局 ...

我軍黃寺附近서
石友三軍과衝突
西苑의敗殘兵을掃蕩

【北平三十日發同盟】三十日午前十時半頃 北平西北方에 又復砲聲이이러나고 機關銃、小銃의銃聲이 北平附近에들리기 始作한다 이戰鬪는北平을隔한 約一粁의黃寺附近에서 石友三의保安隊 阮元武의 部隊約五十及 西苑의敗殘兵과 我鈴木、酒井兩部隊가衝突한것이라고 觀測된다

【北平三十日發同盟】三十日午前十時半 北平正直門外邊에서 砲聲이殷殷히들려온다 或은 昨日來西苑의敗殘兵이아직附近에潛伏하야 我軍이이를攻擊하는것이라고 觀測된다

貴族院本會議

【東京電話同盟】三十一日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八分開會 杉山陸相 發言을求하야 登壇 七月二十八日以後 平津地方의情勢에對하야 詳細說明하고 다시 通州의兵變 中央軍의 北上狀況 ...

支那側不法行爲로
潮州在住臺灣籍民撤歸

【潮州三十日發同盟】潮州在留日本籍臺灣人三十名은 支那側의不法行爲가 顯著하야 二十九日마침내 汕頭로撤歸하엿다 汕頭市內의在留邦人에對한 壓迫은 漸次加重되여 其大半은 이미撤去하엿스나 支那側은 家財運搬을拒否함은勿論 市總會는 食料品日用品 水道 電燈等의配給禁止를決議하고 人道問題에까지 及하야 彼我의感情은 益益尖銳化하여간다

奈良部隊 冀東保安隊를擊破

【天津三十一日發同盟】駐屯軍司令部午前零時十分發表

一、奈良部隊는 昨三十日午前十一時四十分五垣子(北平西北方約四粁)에서 이미 反亂을 이르킨冀東保安隊約三百과 衝突하야 이를 擊破하엿다 敵의遺棄死體는 百五十이며 小銃輕機關銃十一을鹵獲하엿다

一、長辛店方面의敵은 疾風가티 遁走하엿다 目下良鄕以北에는 敵이업다

【天津三十一日發同盟】情報에 依하면 北平保安隊의一部는 北平西方郊外에 脫出하려하엿스나 三十日正午我部隊에게 邀擊되여 再次 北平城內로 遁入하엿다 守備隊及 居留民은 모다三十日까지 異常업다한다

汪精衛下山
蔣에重要進言乎

【上海三十一日發同盟】廬山談話會를 主宰中의 汪精衛는 北平時局의 激變으로 昨三十日午後離山하야 急遽南京에 向하엿다 三十一日中에蔣介石과 會見한後 北支問題에對하야 重要進言을할모양이다

八面鋒

◇八月四日부터 列車時刻大改正、노조미、히까리、아까쯔기等寢臺車廢止。
◇同時에 一等車의連結도廢止하고 遊覽客과團體客도拒絶。
◇爲先 交通에 나타난 非常時色이하나。
◇非常事變이잇슬境遇에는 防空知識이잇서야한다、먼저燈火管制에對한 常識이必要。
◇그다음에는 防毒知識이잇서야한다、毒瓦斯의種類와 應急處置法等도알아둘일。
◇最後로 가장緊要한것은 急하다고 덤비어서는안된다、어대까지 冷靜沈着한 態度가必要。

號外兩次發行

本社에서는 北支事變에關하야 三十日夜와 三十一日午前兩次로號外를發行하얏습니다

今日少年朝鮮日報發行

... 駐屯軍은午前零時 ... 人의敵이라할지라도 두렵지아니하다는意氣를가지고잇다 ... 求하야 ... 萬一에備키爲하야

所要의兵力을配備하고 二十九日大沽에서는 支那兵의 ... 에 備하야 ... 과協力하야 이를 掃蕩하고 水雷艇 呼應하야 萬全의處置를講究하엿다 그리고 山東中南支方面의 排日抗日에對하여는 駐在官憲과協力하야 其防止에 努力하고잇다 特히 第三艦隊司令官으로부터 支那側에對하야 排日抗日言動을 禁止하도록 要望하엿다 海軍으로서는 今日까지事態의 擴大波及을 抑止하기에努力하엿스나 萬一에 備키爲하야 萬全을 期하고잇다

一、貿易及 關係産業調整에 關한法律案(政府提出)
一、貿易組合法案(同上)
一、工業組合法中改正法律案(同上)
三案에對하야 山田委員長으로부터 報告하고 ... 經過及 ... 可決한다음
一、百貨店法案(政府提出)을上程하고 片山委員長으로부터 報告가잇슨後可決
一、酒造組合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萬、...委員長의 報告가잇슨後可決 이것으로서 日程全部를議了하고 同十時四十八分 散會하엿다

國體解釋問題로
衆院總會에서原氏(政友)質問

【東京電話同盟】三十一日衆議院豫算總會는 午前十時二分開會
一、昭和十二年度歲入歲出總豫算追加案(第三號)
一、昭和十二年度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特別第三號)
에對하야 賀屋藏相으로부터 說明한後

原惣兵衛氏(政友) 政府는 今後如何한 革新政策을 實行할方針인가

近衛首相 다음通常議會에 一切의 根本이될國策이나 政策의 具體案을 提出하고 同樣의 意味에서 選擧制度改革에도 着手할豫定이다 그리고 社會立法도 반드시 提出할생각이다

原氏 滿洲移民에 對한 拓相의方針如何

大谷拓相 二十個年 百萬戶案의 第一着手로 五個年 計畫十萬戶移植을 國是로 기여히하것다

原氏 滿洲國에잇는 領事館撤廢問題 意思는업는가

廣田外相 滿洲國의 發展에伴하야 領事館事務도 減少되엿슴으로 相當한 時機에撤廢할터이다

原氏 北支事變에 對한政府의決心如何

近衛首相 余로서는 今日에잇서서도 아직平和的希望을 버리지안햇다 그러나 最惡의境遇에對한決心은하고잇다

原氏 文部省에서發行한『國體의本義』라는 팜푸렛트中에 我

國體는 君民共治로三權分立도아니오 法治主義도아니라고써잇는바이것은 如何한意味인가

安井文相 我國의國體를解釋함에잇서서 西洋式을廢한다는것이다

原氏 그러면 我國은法治國이아니라는말인가

牧野良三氏(政友)不穩當하다 ... 그冊의主旨에對하여 取消할수업슴으로 ... 如何

河野密氏(社大) 國民生活安定에 關하야는 如何한 方針을갓고잇는가

同十時四十八分 散會하고 午後零時十分休憩하엿다 ... 近衛首相 特別議會後에 研究하야 다음議會에는 相當한것을 提案하려고 생각한다

人事·集會

▲安倍幸市氏(警務局圖書課通譯生) 光化門六六二番電話開通
▲後藤富三氏(京城西大門警察署警務警部補) 新任人事次來社
▲山崎莊司氏(朝鮮銀行國庫課長) 新任人事次來社
▲栗原卯三郞氏(朝鮮銀行前國庫課長) 東一銀行에 轉任人事次來社
▲加藤不二夫氏(龍山警察署長) 新任人事次三十一日來社

朝鮮總督府看守(朝鮮人)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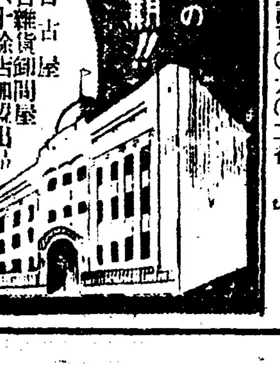
來ル八月十五日午前八時ヨリ刑務官練習所ニ於テ又八月二十六日午前八時ヨリ朝鮮內各刑務所(京城・西大門・仁川及春川刑務支所ヲ除ク)ニ於テ朝鮮人看守採用試驗ヲ行フニ付志願者ハ志願書履歷書及最近ノ手札型半身脫帽寫眞ヲ添ヘ試驗前日迄ニ受驗場所ニ提出セラルベシ
尙詳細ハ受驗場所ニ就キ承合スベシ
京城府西小門町五七番地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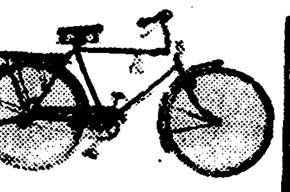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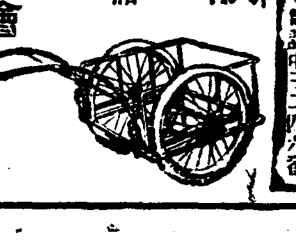
구원과 패망

『이스라엘』인을 노하주지 안흐려고 백방으로 회피하던『애굽』왕『바로』도 지금이야 어쩔수업시 노하 보내기로 작정하엿다
『이스라엘』인은 행오를 정제하고 노예의땅『애굽』을떠나 할때에『여호와』하나님이 압길을 인도하사 밤에는 불기동으로 비최시고 낫에는 구름 기동으로 인도하엿섯다
이러케 행진하는 무리가 어린 아희외에 장정이 六十만명이라하엿다 이는『애굽』으로 나려간 七十여명『이스라엘』인이 약 四백三十년동안 자손이엿다 저희행진이 홍해 바다에 다다랏을때에『애굽』왕의 추병이 뒤를 급히 따라왓다 이때에『이스라엘』인은 아페 바다가 가루막히고 좌우에 산이 둘너잇고 뒤에는 추병이 잇스니 오직 터진곳은 우으로 한울뿐이엿다
밋음이 부족하고 따라서 담력이 업는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다 이저버리고 도로혀『애굽』에서 나온것을 후회하고 원망하엿다 이는 하나님을 밋고 의지하지안는 보통 백성들의 어려운 일을 당할때에 흔히 취하는 태도이다
그 박약한 거동은 참으로 사람의 취할바아니다 그리하야모세가 백성에게 일으기를『두려워말고 가만히 서서 오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일을 보라……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잇스라』하엿다 과연 그날밤에 동풍이 작하며 바다물이 갈나저서『이스라엘』인은 그리로 무사히 건너가고『애굽』군대는 따라드러가다가 갈라젓던 물이 다시 합하야 몰사하엿다 때문을 자책하는 세대여

朝鮮鑛山機王座
ニノミヤ式搗鑛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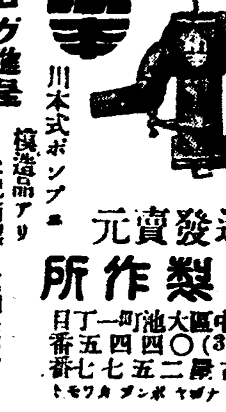
紀念特價提供 (說明書進呈)
京城府西界町三一二
京城鐵工所
電話龍山二二二二番 一六〇七番
京城鐵工所營業部
電話本局九四一番

第十四回
名古屋商品見本市



製作實費提供
●各種自轉車
●各種リヤカー
●タイヤー及附屬品
御償商報進呈
名古屋市東區東魚町
合資會社 近藤鐵商會
電話東〇九〇二番


◇進歩せる臭拔き新裝置(瓦斯·石炭より便利·經濟·安全)
マルハチ瓦斯器

家庭向實費小賣代理店募集
名古屋市中區南武平町 丸八製作所
振替名古屋四四番·電話中三二四六番

川本式ポンプ
登錄商標


カタログ進呈
川本式ポンプニ模造品アリ 上記商標ニ乞御注意
製造發賣元
川本製作所
名古屋市中區大池町一丁目
電話中(3)〇四四五 二五七番 名古屋

001538

私財八十萬圓던저 龍山高普를設立
財團과設立認可를今日申請
元胤洙氏의快擧

中等教育界新光芒

해마다 입학난으로 곤난을당코잇는 빈약한 우리교육계도 교육계려니와 마찬가지로 빈약한 우리의 주머니를 풀러서 이입학난을완화하고저 발분하는 독지가들이 꼬리를물고 나오게되여 매양우리사회를 감격케하고잇다

일즉부터 교육계에 뜻을두고 시내리태원정(梨泰院町)에잇는무산학원 조양학원(朝陽學院)을인계하야 사재십칠만원의 거액을 드려작년부터 리태원 보통학교로 승격식혀 초등교육계에 만흔 공헌이잇섯든 시내어성정(御成町)에사는 부호원윤수(元胤洙)씨는 일즉부터 경성의남부 지대에 사립고등 보통학교를 한개설립하고저 백방으로 준비를하고 잇든중 이번에 이사업이 드디여 구체화하야 사재팔십만원을던저 재단법인원석학원(元錫學院)을 만드는동시에 이재단으로서 사립룡산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고저 금삼십일일로 재단법인허가와 고등보통학교설립인가신청을 당국에 제출하엿다고한다

전기원윤수씨는 한미한가정의 출생으로 자수성가를하야 근년에는 광업계에 활약을하야 자기경영으로 금(金) 은(銀)『아네슌』광등 수십개를 두고 일방으로 일화광업회사(日華鑛業會社) 경성식료품주식회사 세계고무회사 동양물산상회등을 경영하면서 금년봄에 황해도(黃海道)잇는 백년금광(百年金鑛)을 어백오십만원에 방매하야 그중에서 사채를 정리하고 남어지 팔십만원을 이번에 고보설립비에던진것이라한다

이번원씨의 의거에숨은 공로자로 절대노력을하야 이학교설립에 잇서서 잇지못할분이 잇스니 그는현재 칠십팔련대 대대장으로잇는 김석원(金錫源)소좌(少佐)로 원씨가 리태원보통학교를 경영할때부터 부절한후원을하야 오늘의 빗난결과를 맺게한것이라고한다

그리고 이번에 설립인가신청을한 룡산고등보통학교는 그계획이 원씨와 김씨로서는 벌서오래전부터 시작한바임으로현재리태원보통학교교정지 수만평을사드렷고 교사도 강당을빼노코는 어머신축이거의되여 허가만속히게나오면 금년도이학기부터라도 개교를할것이요 느저도 명년일학기부터는 개교할예정이라고한다

充實한學校를 만들기가目的
元胤洙氏談

씨는왕방한 기자에게 대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매년봄이되여 입학난에 울고잇는 학동들볼때마다 애처로운생각을 금치못하엿다 나의 힘이밋치는데까지 충실한 학교를 만드러서 다소나마 입학을완화할수잇다면 요행한일이요 유위한청년이 한사람이라도더나와서 사회의 충실한일꾼이 되여주기바란다 또한 사회여러분의 기탄업는 편달을바라는 바이다 오늘 바로 재단법인 인가수속과 학교설립인가수속을할 목적으로 제출하엿스니 허가가 나오는대로 곳 개교를할작정이다

사진은 원윤수씨와(상우) 김석원씨(상좌) 아래는 신축한교사

一金十圓也 [illegible]消防組員一同

◆삼십일일아침에 부내룡강정(龍江町)일백이십번지에사는 김연수(金淵洙)(七○)씨는 룡산경찰서원과가티 군사령부를 방문하야 국방의연금으로 이백오십원 출정군인위문금으로 이백오십원 합계오백원을 헌납하엿다

◆삼십일일 시내서대문소학교(西大門小學校)사학년생 김부(金富)『치즈꼬』(一○)와 그의동생 석(六石)(七)군과 몽어리돈을모아서 현금일원이전을 국방헌금으로 시내서대문서에가지고왓다

軍隊慰問煙草發賣

북지사변으로 혹열백수십도의 고투영천에서 비장한각오로서 고투중인 장병(將兵)을 위문키위하야、전매국에서는 우량종궐련초『가짜도기』를 팔월중순부터 발매키로되엇다는데 열개너흔것한갑에 십전식이라하며 이위문연초오십전어치를 사는사람에게는 전매국에서위문 주머니를 주리라한다

觀測所를京城에
仁川에는海洋觀測所를新設
航空路重要性을參酌

조선에 오직하나밧인 총독부인천관측소(觀測所)를 명춘에 경성으로 이전하기로되엇다 그러고 인천에는 해양측후소(海洋測候所)를 설치하기로되엇다 인천관측소를 경성으로옴기는 리유인즉 비상시국에 군용비행기를비롯하야 각종려객비행기가 매일가티 경성을통과함으로 기상통보의완벽을표하는것이 절대필요함으로 이에대비하기위하야 경성으로 이전하는것이다

京仁間十回를筆頭 各支線을大量減車
列車減回와 풍성풍성할併行線自動車
食堂車도大部分廢止決定

이번철도국의 렬차운전 제한으로 말미암아 각근거리의 구간려객차운전은 모두 폐지하고 다만 화물과려객혼합차로 울 대신하게되엿는데 그것도 부산(釜山) 안동(安東)사이의 대간선과 경성청진(淸津)사이의간선에 겨우각기하로에 두번씩운전하게되엇고 경성인천(仁川)사이는 종래에하로 십오회운전하든것을 열번씩만 운전하기로되엿다 그밧게 각지선(支線)에는 종래에 오륙회혹은 칠팔회식운전하든것을 겨우 이회혹은 삼회식 운전하기로되여서 전조선을통하야 철도교통에 일대이보지못한 큰변동을 이르켯다 여와가티 려객차나 화물차가 무척 제한 감소되엿스므로 철도병행선(併行線)으로 영업하고잇든 정기자동차와 또는 화물자동차는 별안간에 큰번창을 보게될터이나 화물자동차도 요지음에는 차대수가 넉넉하지못한터이므로 물화교역(物貨交易)에 큰 변동이 잇게될듯도하다

그리고 또 식당차(食堂車)를 련결하는 렬차도 훨신주렷스므로 정거장변또나 기타 역에서 파는 음식물이 종래보다 훨신 만히 팔리게될모양이다 정거시간이 짧은정거장에서는 여간해서는『변또』한그릇도 사먹기어려울형편이다

食堂列車廢止와 構內賣食嚴取締
利用者激增을豫想코

렬차운전제한에 따라서 철도국에서는 삼십일일오전에 각정거장 구내영업자(構內營業者)들히『변또』 기타각종과자 음식물등 판매자와 차깐안에서 음식물을 파는사람과 구내식당(構內食堂)등에대하야 다음과가튼주의를시켜서 일반려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하고 관계역장에게엄중히 취체하도록 통첩을하엿다

▲렬차의 운전제한기간중 판매하는 물건의 수효도자연히증가하게 될터이므로 식료품더욱이『변또』가튼데는 식당차의 대부분이 폐지되게되므로 정거장 립매(立賣)나 차깐안에서판것은 일반의수요를 고려하야부족이업도록 주의할것

▲변또를 맨들고 기타음료식물은 그재료를엄선할일

▲조리장(調理場)은 항상청결히하고 위생설비에 류의할일

▲부패또는 불결한것을 알지못하고 그냥판매하는일이업도록 주의할것은 물론이고 부패할우려가잇는재료는 사용치말것

▲『변또』는맨드러서 판매하기까지 청결한곳에 보존하야개암이나 파리가 드러가지안토록 주의할일

▲차(茶)는 잘끄린물을사용하고 차도넷는것도 그도수를 잘마출일

▲음식물의 선정 조리 판매는사용인에게만맛겨두지말일이다

食料詐欺兩件

삼십일일오후로서판내에 그럴듯한 사기두건

A. 동일오후한시경 부내수은정(授恩町)팔십번지 윤홍수(尹興洙)(四)의 싸전에 황금정산다는 카-키빗 양복을입은 신사풍의 사나이가 나타나 백미여섯포대(대금무십륙원)을 주문하야 그집배달부에게 실려가지고 가다가 관수정(觀水町)구십사번지아페 이르렀슬때 영수증을보재하야 인지가업스니 인지를 사오라고하야 배달부가 간틈을타서 손구루마채로 쌀을가지고 어데론인가 종적을감추엇고

B. 동일밤아홉시반경 부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백삼십륙번지경신주점(京信酒店)으로 어떤자가 전화를거러 서대문정일정목 석물공장(石物工場)압까지 약주두말(대금십원)만곳가저오라고하야 가저간즉 역십가량된 사나이둘이 나타나 집이우에 잇스니 위선보고오라고 자전거를 두게하고 그집을보러 간사이에 자전거채로 약주를가지고 내빼버렷다

소관종로서에서는 이일맥상통한 범인을 엄탐중이다

一、產院은病院과달라서조그만부정도업습니다
一、用費도아조적게듭니다
一、어떠한難產이든지手術以外에는아조安全하게보아드립니다
一、往診도應합니다
京城社稷町三一ノ十號
順產院
電光一四九四
(見習生歡迎) (廣告)

假巡查無賃乘車

시내서대문서에 가짜순사가참말순사에게 붓들렷다 삼십일일오전여섯시경에 경성(京城)가는 제일백이십팔호전차가 렴천정에 다다럿슬때에 시내 관동정(館洞町) 륙십 륙번지의 이호예사는 무직자 백창흥(白昌興)(三)이가 전차표를 주지안코 내리라하므로 차장 류재상(柳在上)(二)군이 표를 달라고하엿더니 자기는 서대문서(西大門署)순사라고 버틔므로 수상히녀여 부근파출소로 데리고갓더니 드듸여 그의 엄정한 가짜순사의꼬리가 들어나서 서대문서로치장에 수용되고말엇다

群山에海事出張所

군산(群山)의 항세(港勢)가 날로발전됨에따라 그곳관해관청(管海官廳)설치문제가 더욱표면화되여오던바 이번 전북、충남의 대부분을 소할구역으로하는 군산해사출장소(海事出張所)가 신설되여 팔월일일부터 관해관청으로서의사무를 집행하게되엿다 이에따라그곳 출입선박과선원이 입는편리가 매우크게되엿다 초대소장은 체신기수덕후자지길(德厚子之吉)씨인데 그관할구역은 다음과갓다

全羅北道一圓

忠淸南道 洪城郡 保寧郡 舒川郡 禮山郡 公州郡 燕岐郡 大德郡 論山郡 扶餘郡 靑陽郡

盲人의橫厄

삼십일일오전일곱시사십오분경에 서내 죽첨정(竹添町)이정목 엄혜실오번지압에서 마포(麻浦)에서 서대문쪽으로진행중의 제오십팔호전차에 나이사십살된장님이 횡단하다가치여서 머리를다치고 뇌진탕(腦震盪)을이르키고 방금적십자병원에서입원치료중인데 생명이위독하다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黃河下流와 南支那에잇스며 颱風은 琉球의 南方海上에잇서 거의不動狀態에잇다 高氣壓은 日本東海上으로부터 西日本에로 퍼지고잇스나 滿洲、朝鮮의 氣壓配置는 좀不安定하다 北滿은晴 南滿과 朝鮮은흐리며 南岸에는小雨 日本內地는 흐리고北海道南岸에는 연개가잇다

豫報 京城地方은今夜와明日은흐리고 어쩌면 小雨가내릴러이다 京畿道全區도 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三二度八
同最低 二四度七
今朝最低 二三度九
今日正午 二九度三

軍人家族扶助費로 三十萬圓募金
總督府에正式寄附許可申請
軍事後援聯盟事業

총독부내무국안에 잇는조선군사후원련맹(朝鮮軍事後援聯盟)에서는 총독으로부터 정식으로 기부금허가를 어더가지고 각가맹단체와 각도당국에 명하야 거부금을 모집하야 출정군인의가족부조에쓸터인데우선 제일회로 모집할것은 삼십만원으로 모집착수는 팔월초부터 시작할터이다

國防獻金遝至
天主教會主教 百圓을本町署에

부내명치정(明治町)에잇는 천주교회주교(天主教會主教)『아·라리보』(元亨根)씨는 삼십일일 국방헌금 백원을 본정서에보내왓다

女職工도奮發

경기도 안성군양성면 미산리(安城郡陽城面美山里)는빈한한농촌인데 민영조(閔泳肇)이라는청년이 중심이되여 활동한결과현재에는 해성제사공장(海星製絲工場)까지되여 갱생농촌의 실을내여가는중 이번북지사변을 게기로 느낀바 잇서서 그공장녀공 삼십오명이 헌금이십원오십전을 추렴하고 전기민영조씨가 오십원을내여 합계칠십원오십전을 삼십일일 경기도로부쳐와서 국방헌금을 하엿다

◇……삼십일일 종로서에들어온 국방헌금

一金二百圓也 樂園町一八二의二 白橫淳 氏

一金百圓也 安國町一六三 潘晶熙 氏

◇……동일동대문서에온 국방헌금

一金二百圓也 明倫町一丁目三六 金箕煥 氏

落雷로六名即死(四名重傷)
金堤郡鳳南面堤防上에慘事

〔金堤支局發電〕 지난삼십일 오후다섯시 김제군봉남면(鳳南面)월성리(月城里)동민여명이 갑작히 퍼붓는소나비를 피해서 부근방둑에 모혀섯든중 돌연벼락이 떠러저서 즉사여섯명 중상네명의 참사를냇다.

長湖院原州間 鐵道延長免許
蒸汽까솔린車를使用

조선경남철도회사 (京南鐵道會社)에서는 얼마전에 철도국에기설선로 장호원역(長湖院驛)으로부터 강원도원주읍(原州邑)에이르는 사십록『키로』의 연장선부설허가원을 제출하엿든바 수일전에 면허되엿다한다 건설비는 사백만원예산이며 증기(蒸氣)까솔린차를 운전하게될터이라한다

忠武公祠에拜禮 廣寒樓서淸宴
本社主催漢拏山探險團一行
明朝七時에京城着

〔南原에서特派員李鴻稙發電〕삼십일오전 열한시에려수(麗水)에 도착한 우리제주한나산 탐험단일행은 곳려수시내 구경을 하려떠나게되엿다 옛날 조선의전형적 무사(武士)인 충무공(忠武公)리순신(李舜臣)장군의 충렬사를보하야 그 위패를 모서잇는 사당에 참배하야 엄숙히 목례로 경의를 표한뒤 오후 세시발차로 남원(南原)으로 향해 떠낫다 제주서 려수로 오는뱃길이 느저저서 부득이 예정일정(日程)을 연기하야 남원에는 저녁때에 다이게되엿다 삼십일은 여기서 류숙하고 삼십일일은 아침에는 단원에게 자유행동을 하게하야 각거 춘향전(春香傳)의 발상지로 서 세상에유명한 각명소를구경하고 오후한시부터는 광한루(廣寒樓)에서여번 한나산탐험단의성공을 자축하는 간략한연회를베풀고 열두일동안 적체되엿든피곤을 완전히 씨려버렷다 일행은이날오후에 남원을떠나서 바로경성으로 향할터인데 명일아침일곱시십여분에 경성역에다이게로되엿다

中等陸上은明日!
廿九校二百健兒登場할

半島陸上競技界의 第二陣을總動員시켜 榮譽의覇權을 決하는 第四回全朝鮮中等學校陸上競技對校選手權大會는 明一日(午前十時)과 二日(午後一時)에 京城運動場에서 壯快한幕이 열리게되엿다 어늬의出場校는 既報한바와가티 二十八個校에다가 高等豫備學校를追加하야 二十九校에達하는바 一部(十八歲以上)와 二部(十七歲以下)에出場한 各校의陣容을보면 京商(一四名)、春農(四名)、龍中(九名)、平高(八名)、光成高(六名)、光州中(五名)、光州高(八名)、高豫(三名)、[illegible]南中(六名)、海州高(一〇名)、公州高(九名)、釜山中(五名)、京城工(九名)、京城電農(二名)、養正(二七名)、培材(三三名)、仁川商(二〇名)、普成(三名)、全州高(六名)、高敞高(一名)、全州農(四名)、東萊高(一名)、淸州高(五名)、春川高(三名)、[illegible]崇德(九名)、崇商(四名)、徽文(一一名)、二高(一一名)、京師(二三名)等으로서 總數는實로 二百六十一名에 達한다 그中에서個人的으로 頭角을나타내인 名將으로는 短距離의金裕澤君(培材)이 日米對抗選에出場하엿다가 合宿練習에도 參與치안코 歸校하야 母校의名譽를爲하야 奮鬪하게되엿스며 養正의 馬鍾鳳君이 萬能選手의快技를 發揮하야 多量得點할것으로 期待된다 그뿐만이라『허들』과四百米의李常榮(崇德)三段跳의羅彌成(光成)中長距離의李鍾錄(培材)池永龍(培材)養正의李聚泰等의 錚錚한國將과無名勇士들이 參戰하야 炎天下에 一大激戰을展開하기로되엿다

靑學籠球連勝

中央基督教青年會學校籠球部一行은 二十七日午前十時에는 五山高普軍을 二十九日午後四時에는 東萊高普軍을 다음과가튼『스코어』로이겨 八戰六勝二敗의 快績을 남겨고 二十九日에 新義州로 向하엿다한다

靑學 44 (30 14 / 23 13) 36 五山高普

靑學 27 (7 20 / 13 9) 22 東萊高普

幼少年寄生蟲撲滅運動을提唱

第一回極貧家庭에
爲先一萬名分頒布
頒布個所 三百三十七部落

微誠以藥報國

우리는 恒常農村을 도라볼때 容貌가蒼白한 兒를만이본다 그들은 家勢가貧困하야 營養不足인탓도 잇스려니와 보다도 저獰猛한寄生虫(蛔虫蟯虫等)이腹中에 가득하야 피를빨고營養을 橫奪하는까닭이다 總督府學務局調查에依하면 朝鮮人兒童의 寄生虫保有者가 勿驚 百名中九十名 比例에達한다하얏스니 이얼마나 可恐可畏한 現狀이며 엇지有心人의 그前途를憂慮치안을수잇스랴

斯界專門의醫學博士는말한다

寄生虫 病者는 文明國일수록 적은것이니 未開國特有의 下等病으로 치는것이다 우리는 不幸히 衛生觀念이 薄弱하야 寄生虫病者가 지극히만은것이며 더욱이 農村에만라 엇던시골에서 十二歲女兒에게 蛔虫을 뽑아내엿던바 처음에는 三十八疋의 蛔虫이나오고 그다음에는 每日或은 하로건너큼 쏘다지는것이 總計百五十三疋을 쏘다노키는하엿스나 原來 때가느진지라 患者는마침내 角膜乾燥症을發하야 드듸여生命을 빼앗기고 마럿다고한다 이얼마나놀나운 實話이랴 이可恐할

蛔虫 蟯虫 絛虫等卵은

사람의 大便과함께 排出되야 野菜가튼데 붓텃다가 다시다른사람의 胃腸에드러가 成虫이되는수가 만은것이다 그럼으로 特히 野菜 김치等을 注意하야 잘씻서먹어야 할것이다 蟯虫은 흔히 直腸이나 盲腸에 寄生하는 실오래기가튼 一寸乃至三寸쯤되는 人體에만은 害毒을주는벌네다 그리고絛虫은 牛肉 豚肉 魚肉等을 生食하면 생기기쉬운것이니 어느것이나 腹中에드러 여우리의養分을 奪取하는 무서운 害毒을주는 벌네인것이다

平素의宿望·오직우리들의貴여운 子女의몸에서寄生虫을 고저

우리는이 무서운 病虫의寄生으로 말미암아明日에이따의 主人公이될 貴여운 數만은子女의 그들은하여。할 肉體를 涸渴케하며 顔貌는 호박꼿가치 누르고떠서 無氣力하게다니는 그꼴을 차마볼수가업서서 以來數三年間 或은集團的으로 或은個別的으로 이寄生虫撲滅에 努力하여왓섯던바 今般이運動을 한層擴大加速度的으로 有效具體化하기爲하야

◎第二國民寄生虫撲滅協會를 組織하고 恒久繼續的으로 이事業의 目的을 達成코저 全能力을傾注하야 盡忠竭力할것을 盟誓하옵고 爲先左記規定에依하야 第一回 三百三十七部落(洞)一萬兒童에게 寄生虫撲滅을 期하오니 都市나農村을 不拘하고 區長又는振興會長名儀로 至急請求하여 주시기를바람니다

寄生虫藥無代頒布規定

第一回(三百三十七部落(洞))一萬名限
—請求即日發送함—

一、請求數量一洞三十名式 (特効サントニン劑 寄生虫藥 一名全治量二日分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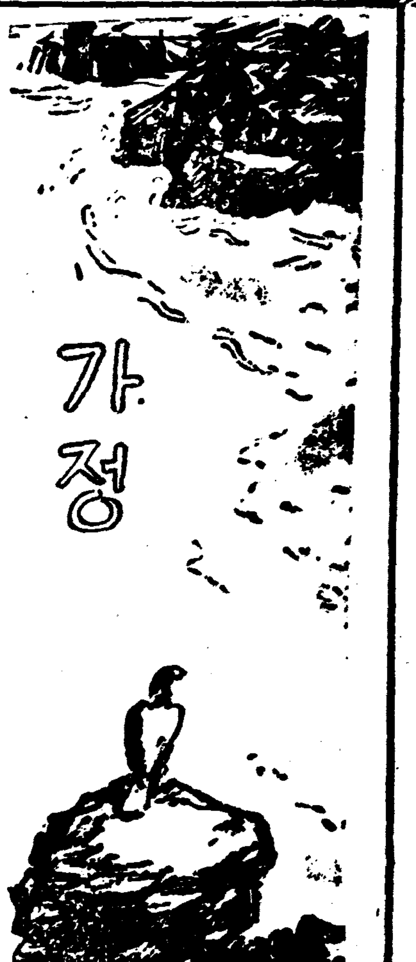
一、期限 昭和十二年八月末日限 (三百三十七部落超過時는期限前이라도締切)

一、方法 區長又는振興會長名儀로捺印請求를要함

◎注意(必히어느 郡、面里洞에配給할것을明記할것)
◎頒布方法은洞內極貧家庭兒童으로부터配給할것

◆每回 期限內에 請求가 업는郡面에는 東亞日報 朝鮮日報 每日申報 各支局又는 當該郡廳에配布를委囑함

京城府堅志町六○番地
事務所 平和堂株式會社內
李根澤社會事業部
長電話光化門大三二番



듯기에서늘한 우는벌레기르기 — 그러나잘못하면죽기쉬워

찌는듯 더운날에는 뜰이나 마당에 물도 좀뿌려노코버러지소리도 좀 들리면훨씬 시원한 기분이 납니다。그럼으로 밤과가트면 버러지소리에다가 반디ㅅ불을 켜저야 더한층 운치도잇고 청쾌해진답니다。그러나 우는 버러지나 반디도 기르는법을 알고 길러야지 그렴 몰라서는 소용이 업습니다。혹 조그만 버러지라고 우습게생각하실찌。몰라도 그건 그대로 힘이 듭니다。

×

사람의 생활에는 의식주의 세가지가 필요한데 버러지들은 위선 사람보담 옷걱정이 하나덜하나 그나마의 집과 밥을 걱정해야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단시 아무리 훌륭한 조롱에 너헛다고 하더라도 푸른 풀만은 떠서 너허 주어야 하고 그것도 신선한것으로사주 갈아야 됩니다。

×

그리고 조롱은 처마기슭이나 기둥모퉁이가튼데 해ㅅ버치 잘드러 쏘이지 안는곳에 노하 두십시요。전기ㅅ불미트나 햇ㅅ갓아피나 바람마지에다가는 결코 노치마십시요。모기향이나 담배연기는 딱 질색입니다。

또 개미가튼것이 덤비도록 되야도 못씀니다。흔히 풀숲속에 노하두면 기운이 나리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노핫다가 가엽시도 개미밥을 맨들고 마시는 수도 잇시요。또 버러지만 저의끼리 잡아 먹는 버릇이 잇스니까 두마리이상 가치 너허서도 못 쓰고요。

×

반디는 아무 것도 안먹기만은 우는 버러지는 오이나 가지나 두푸룩개로비어서 하로 한번식 너허주어야 됩니다。그런데 그것을비는 칼이 조금이라도간스기가 잇스면 그버러지는 큰사죽엄이납니다。어떤 버러지나 물은 통으로 안먹습니다。도대체 습기가 금물입니다

×

버러지도 병이 나는 수가 잇스나 고칠 도리는 업습니다。그저 보통때 그 거처와 먹이를 주의해 주는것이 제일입니다。

―(번)―

단속하십시요 허순한 옷매무새 — 불량패들이더날뛰다

워낙 더워 노호면 모든 것이 한만하기 쉬워서 못되자들이 좋흡하게 됩니다。해수욕장 가튼데서 반벌거숭이로 쏘다니는데는 더 말할것이업고 자기집안이나 길ㅅ거리에서도 봉변을 당하는예가비일비재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게획적으로 덤비는놈도 업지는 안치오마는 정신이 건전치 못한데다가 눈ㅅ결에 뵈는것이 기픈 자극을던저 고만 저도 모르게 발작되는자들이 대부분입니다。그런자도 물론 제게 허물이잇는것은 사실이나 얼마간 이편짝이 조심하지안한 책임도 저야만됩니다。

×

발이나 커틴을 처노핫다고 안심하고 옷매무새를 걸러제치거나 다리를 거더부치고 안즈시는분이 만흔데 그런 틈으로 은익하게 내다보이는것이 더자극을주답니다。안가슴을헤치고 애기에게 젓을 멕이시는 광경, 분세수를 하시느라고 경대아페 안즈신광경, 옷을 갈아입으시는 광경들의 모든광경이 밧게서 드려다 보이도록 되야서는 재미가 업습니다。하다못하야 빨래를 하느라고 쭈구리고 안저서 아래ㅅ두리가 허전스럽게 보이는데도탈이 붓는답니다。그저아모리 덥더라도 내외를단단히해서 그런일을 하서야할것입니다。

×

댁에 자주드나드는 장사치나 심부름군이라고 부주의하시기 쉽지만은 그런자들은댁의 구조를 더잘알아서 더 겁나는 놀입니다。두려두신채나 옷매무새가 허름한채 그대로 게시다가 그 당장이나 그 다음에 봉변을 천하시는 것입니다。얇게 비치는 옷일수록 모든게 단정하고 깔끔해야 됩니다。그래야만 애초부터 저편에서도 엄두를 내지 못 한답니다。길ㅅ거리에 나서서도 공연히 이사람 저사람 처다보고 훌터보고 그런 짓을 마십시요。그러케하시는것은 못된 자들을 이리오라고 부르시는 거나 다를이 업지요。

"소아"와"해수욕" — 해시조흔아이와납분아이 ①

趙漢英

초복이지난 요사이의 더위는 본격적더위가되여서 우리는 폭서의 시달림을 밧지안흘수업게 되엿습니다。찌는듯한 도회지에 잇기가 실혀지고 갈메기떼날으며 한업시 넓고푸르른 시원한 저바다가 몹시도 그리워젓습니다。그래서 어느해나 여름동안에는 바다를차저 해수욕장으로 가시는분이 만습니다。쓸쓸하든 해변이 갑작히 웅성웅성해지는 것도사실입니다。방학동안에 해수욕하라가자고 부모에게졸으는 어린학생도 만허젓고 또는 어린이를 다리시고 해수욕장으로 가시는분도 만허젓습니다。그러므로 소아와 해수욕과의관게를 말슴해서 다소 참고가 되시게 하랴합니다。

해수욕은 바다물과 해수욕장즉 해변에서 밧는 측접 간접의 작용을 리용하므로써 몸을 튼튼하게하는 방법입니다。그러므로 먼저 바다물과해변의기후에대해서 말슴하겟습니다。

『바다물』은 일종의 광천(鑛泉)즉 령염류천(含鹽類泉)이라고 할수잇습니다。즉바다물에는 적은부량의『크롤마네슘』『크롤칼슘』『류산(硫酸)마네슘』『류산칼슘』과 만흔분량의 식염(食鹽)들의 염류(鹽類)가 포함되여잇습니다。그런데 바다물이몸에 다흐면 이상의염류가 적은 결정(結晶)이되여서 피부의주름속에 부러잇슴으로 피부를자극하는 작용이 잇습니다。

여름의 바다물의온도는 섭씨이도내지이십사도이여서 우리의 체온보다 낫기때문에 몸온랭각(冷却)하는작용이 잇습니다。

또바다물의 물결은 몸에기게적자극(機械的刺戟)을주고 몸을 씻고 히여침으로 전신의근육운동을하게됩니다。

『해변의기후』는기온(氣溫)의차(差)가 적은까닭에 감기에걸릴 염려가 적습니다。또해변의공기는『오존』이라는것이 만히포함되여잇고 몬지와납분균이 적어서 매우깨끗합니다。또 나제는 바다에서륙지로 밤에는 륙지로부터바다에부는 고요한바람이끈일업시불고잇습니다。

또공기속에 습기가만코 염분(鹽分)이 드러잇스며 해변이니만치 일광을풍부히밧게됨으로피부가튼튼해집니다。

또한가지 해변의 특점을말슴하면 우리의신경계통에 만흔영향이잇는것입니다。즉 기온의차가적음과 잔잔한으비슴을게 푸르고또푸른 망망한대해를 바라보게됨으로 은연중 정신이안정되고 또는정신의흥분을 충분히진정식힐수잇는것입니다。

이상말슴한 해변의기후와 바다물의작용으로 규측잇게 해수욕을할때에는 몸안의 혈액순환이 잘되고 피부가튼튼해지며 식욕이늘고 소변의분량이 만허지며 몸안의신진대사가 잘되여서체중이늘고건강은 증진합니다。그러므로 사정이 허락한다면 여름동안에는 어린이와함께 해수욕장에서 지내시는것이 어린이의 보건상 매우조흔효과가잇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이조타고 그저바다물속에 드러가기만할뿐으로는 기대한는바의 효과를엇기어렵고혹은 도로혀 해롭게되는수가 잇습니다。그러므로 아래에 말슴할 여러가지의주의를 잘기억하서서 일긴시작하신 해수욕을 가장유효하게마치시도록 하서야합니다。

우리차지

거짓말대회

원두막우에 세아이
가 누어이 야기한다。
한아이『바테서 참외익
는소리가 바작바작 한
다』
한아이『그러냐。저쪽하
늘에는 구름이 떠오르
느라고 부글부글 소리
가난다』
한아이『얘 내뱃속에서
생생소리가난다』
『왜』
『참외가먹구시퍼서』

(금강사탈 강동익)

001539

長篇小說 찔레꽃 【91】

金末峰 作 金熊超 畫

영혼의시장(二)

만석추수!백만장자의 젊고아름다운 신부인(新夫人)으로 그보다도 민수와가티 가난한 서생(書生)을 밟아래 강아지처럼 업수히여길수잇는 경우가, 네-하는 대답한번으로 될수잇는것이다。

침모박씨의 수다한설명이 거의 끄치나고

『그러니 안선생님 참경말이야요 저편으로말하면 달리 신부를 구하려면 아 서성님가튼처녀야 싸이고 싸이지안헛습니까? 하니깐두루 안선생님 이왕이면 다른곳에서 나서기전에 우리아주 정해버립시다』

『……』

정순은 방그레우슴뿐 잠잠하엿다。

『좋어리어리하게 사라보시는게 소원이라고 그리섯죠?』

하고 침모는 정순이가 잠자코 안젓는것이 딱한모양이다。

『글세요 내좀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집에가서도 의논을해봐야 안되겟서요?』

『그야 다이를말슴얘요 속담에 물른갑도 쉬여 먹으랏구 허지만서두 저쪽사정이 그러케 천년세월한구 잇슬수는업거던요 그러니 내이러케 전갈할까봐…처녀는 뜻이잇는데 부모님의 의향을드러서 결정하자구』

『…려오간 저쪽사람은 누군데요 성명이 무어이고 서울산다니 어데쯤 살고잇는 사람인지를 알어야 하지안허요?』

『그야 물론이조 안선생님께서 이혼인에 의향만게시다면 듯기실타고 허시더래도 작-작 외바칠테니깐요』

침모는 무엇을 결심한듯이 땅바닥을 한번 굽어보고는

『참 안선생님 어데 약혼하신데는 업것죠?』

정순은 아픈곳에나 다은듯 눈살을 찌프려보이고

『약혼한곳이 잇스면야 달리시집을 갈수업지안허요?』

『어이구 그저말슴하시는게 저러케 어것하시다니까』

침모는 싱글벙글우스면서 자리에서 이러서자 그는그길로 어두컴컴한 뒷뜰로 내려섯다。

늙은여호처럼 어둔길도 서슴지안코 조만호씨서재 북편창아래까지오자 그는 몸을숨기고 방안을 엿보앗다。

텅-비인 방안의모양을 살펴본 침모는 허둥지둥 다시도라서서 발소리를 죽여가며 자기방으로 도라갓다。

침모박씨는 귀신의목아지나 베여든듯이 신이나서 조만호씨의 도라오기를 기다렷스나 그럭저럭 벌써 열시를치고 열한시를 접어드러도 조두취의 도라오는 기척은 들리지아니하여 그는 허탕치고고자리에 드러가버렷다。

다옥정 옥란의집 안방에서는 지금 얼근이취한 조두취가

『응그래그래 그런다는데도그래……』

하고 방금 옥란이가 무슨말인지 다짐을밧고 또밧는데 그는 성이가신듯이 아무러케나 대답을하고 옥란이 내미는 술잔을 덥석밧는다。

자개의거리 큰거울이달린 소나무가 조각되여잇는 의거리를 배경으로 자주깃과 고름이달린 옥양목힌저고리를입은 오늘밤옥란은 바로 안방새악씨처럼 얌전하고 어여쁘다。

『영감 그러니말야요 언제쯤에 식을 허실작정인지 난그게알고십다는거야요』

『예식이라?』

조두취는 안주집는 저까락을 잠간멈추고

『내변통이 어떨까?』

하고 마른전복을한쪽 입에너코 안석에 지석기대엿다。

『그런데요』

옥란은 은주전자에서 노-란 약주를 따르면서

『혹시 영감댁 어느일가던지 친척되는이가 우리혼인에 반대할사람은 업겟죠?』

하고 술잔을드려 두취의 터미트로 가저갓다。

안석에 기대인채 술을바드려고손을 내밀든 두취가 갑자기와 량영창문을 열어제치며

『거누구야』

하고 호통을하엿다。

너무나 갑자기 더욱이 조두취의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웟도록 컷기때문에 옥란은 손에들엿든 술잔을 자칫하면 떠에떠러트릴번하엿다。그보다도 옥란은기픈 밤에 자기집을 엿보는 수상한 사람이 잇다는것을 직각 하자 그의 자주빗 옷고름이 갓죽인 짐생의간덩이처럼 퍼덕엿다。

두취는 문을열고 대청으로나와 이리저리 마당과 부엌쪽을 살펴보고

『대문 안거럿넷나?』

하고 옥란을 도라보앗다。

『웨요 걸엇슬텐데……』

옥란의어머니와 아들수남이가자는 건너방에서는 다!잠이드럿는지 아무기척이업고 뜰아래방에서 영창문을열고 마당을 내다보는것은 옥란의오빠다。

옥란은 두취겨트로 밧삭닥어서며

『영감 나무서워서 어떡해요 오늘밤은 가시지마서요네?』

두취와 옥란이가 다시 안방으로 사라진담 이윽고 마루미테서 사람의머리가하나 쑥-나왓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도란도란 이야기소리가 들리고 간간히옥란의 간드라진 우슴소리도 흘러나오는데 시컴언머리는 살곰살곰 안방미다지겨트로 가까히 갓다。

문에다 귀를대인채 가만히가슴속으로 손을너허보고 어둠속에서 처참하게 웃는사람은 황금에팔려간 애인을못이저 사나이의체면을 복수라는 순간적쾌감과 바꾸어버릴 결심으로 차저온 최근호다。

京城各學校女先生評判記 梨花篇 培花篇 3

畫報 ▲八月의水神 ▲淸凉의鄕愁 ▲모던漁婦 ▲山으로 金剛으로 ▲江으로 大同江으로 ▲校林各學校納涼소포

記者一

내가女醫가되기까지……金東淑

國際舞台에빗날李貞愛氏를찾어

京城各女子專門學生夏休플랜 ▲梨花女專生 ▲中央保育生 ▲梨花保育生 ▲京城保育

北平에서본中國女學生……洪鍾仁

主婦日記……崔以權

家庭讀本
改良型內衣製法……任貞爀
海水浴場의化粧法……吳淑根
夏節의兒童衛生……張文卿

隨 마음의湖水

新戀愛論……金基錫

納涼四題
午睡……畵·金奎澤 文·洪鍾仁
西湖津……畵·洪祐伯 文·李源朝
漁村……畵·崔根培 文·盧泉鳴
庭園……畵·鄭玄雄 文·咸大勳

銷夏小說特輯
유모어小說 毛皮濟 朴慶浩
短篇小說 雲霧 鄭飛石
短篇小說 果實 趙豊衍
中篇小說 停車場近處 蔡萬植

沙場의悲話
※바다의노래……朴泰遠
※幻想……毛允淑
※競泳과順伊……安懷南

納涼隨筆
感情白紙……金晋燮
珠簾……張德祚
太極扇……李源朝

◎記憶에남은夢金浦(旅行印象記)姜敬愛
◎갈반과산개나리(鄕土有情記)盧天命
◎늙은귀신火葬(그夫人一生)申鼎言

女流諸氏의銷夏法公開
金活蘭·尹聖相·車士百
徐恩淑·宋今璇·高鳳京
朴奉愛·張文卿·外諸氏

世界女性들의新生活……春城
◎世界女性展望 ◎옷지맙시다 ◎內外珍聞

彫刻家 金復鎭氏家庭訪問……R記者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八月銷 女性 發賣中

絶版되기前에 速히注文하시오

金剛八潭과羽衣八仙女(朝鮮名瀑傳說)車相瓚

無鼻夫婦說(女性讀本)李殷相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夏特輯

聖女헬렌·켈러女史의意志(내가나를살리자)徐恩淑

▣詩·屛……노천명
▣表紙·挿畵……鄭玄雄
▣屛畵·挿畵……崔根培

新興益山의躍進相 其一

往昔"馬韓"의遺墟로 穀倉湖南의大關門
古蹟만키로朝鮮內有數의郡
新興의面目實로躍如

朝鮮의 穀庫요 全羅道의門戶로서 湖南의交通中心地인 益山은 産業의隆盛 交通의 頻繁 歷史의 深遠 名勝古蹟의許多로 全朝鮮的으로 著名한지己久이다 全北西北隅에位하야 南으로는 萬頃江이 緩流하고 北으로는錦江이圍繞하야 이곳에沃饒無比의 益山平野가 展開되여 三十四方里七三의 面積을占하고 一邑十七面과 十六余萬人口를 包容한大郡으로서 畓二二、○一七、三四町步와 田五、四八四、四町步의 沃土가延袤하고水利富潤하야 農産物의年産額은 米壹筆石으로 麥豆、其他雜穀을合하면 實로三十餘萬石을算하니 朝鮮의寶庫임이確實하다

그리고 本郡은 往年箕準이衛滿의避亂으로 彌勒山下에이르러 孤城落日의 不遇의境涯에서 開國하얏다가 千秋의恨을품고 百濟始祖王에게 無慘히빼앗기고말은 恨만흔 "馬韓國"으로 그外에도 幾多의 深遠한 歷史며 名勝古蹟은 箕準城趾、彌勒塔、王宮塔、雙陵、五金山城、龍華山城等枚擧하기難하다

益山은 實로天惠豐富로다한곳이니 氣候溫和하야 生産豐饒에도最適의地帶이니와 有利한地理上交通上諸條件은 飛躍的大發展을招致하야 裡里驛一個所에서만 勿驚! 乘降人員이年八十餘萬人 貨物發着이年八十六餘萬키로그람에達하며 畓百町步以上의農場이 三十餘個所、資本二萬五千圓以上의商工會社가 二十餘社를算하나니 最近에至하여서는 大規模의裡里邑新築을爲始하야 裡里邑事務所及公會堂의新築 各面學校의改築 産業規模의擴大 其他諸般施設의擴張等實로 新興面目이躍如하야 一加一躍進의勢를示하고잇다

◇沿◇革◇

本郡은 往者馬韓으로서 箕子의四十一代孫準이 衛滿의 亂을避하야 彌勒山下에 雄據하고 拓地開國하야 馬韓이라 號稱하얏다 그後百濟始祖王에게 征服되고 新羅神文王時에至하야 金馬郡이라 改稱하야 全州에 隸屬하얏드니 高麗忠惠王五年에는益州라號하고 李朝太宗十三年에이르러 益山郡이라 改稱하얏든데 大正三年三月府郡廢合結果舊益山礪山 咸悅及龍安四郡을 併合하야 益山郡으로서 現在에至하얏다

地勢及位置

▲地勢 本郡은全北西北隅에位하야 一邑十七個面百五十三個町里를 包括하얏나니 東南은 萬頃江을隔하야 全北平野에 西南은 臨沃平野를劃하야 沃溝郡에 西北은錦江을界하야忠南舒川郡에 北部는江景沃野를望하야 論山郡에接하얏다 東北及西北은 到處에小陵丘岡이起伏하고잇스나 其他는平坦하야 郡의中央에 彌勒山系와錦江流域에蟠連한咸羅山脈의一帶가잇슬뿐 萬頃江錦江의二大流는郡界를緩流하야 沃饒無比의益山平野를形成하고 水利舟運의便도 良好無雙하다

▲位置는 東經一二六度五五分四四秒 北緯三五度五五分五三秒 南北七里二五町五四間 東西六里二〇町三七間 面積三十四方里七三

▲戶數와人口 (昭和十年十二月末日現在調査)

戶數=三萬六百五十五戶
人口=十六萬四百五人

產業

▲農業

◇…農業者數=農家總戶數三二、六七二戶 自作五九一戶 自作兼小作二、六八〇戶 小作一六、七八六戶 被傭者二、六四四戶

◇…耕地面積=畓 二三○一七、三町 田五、四八四、四町 合計二七、四五五、七町 自作畓四、四三○、七町 田一、五二五、二町 小作畓一七、五八六町 田三、九五九、二町

◇米收穫高 二十二萬三千四百三十二石
◇麥收穫高 五萬三千四百三十三石
◇豆收穫高 一萬三千七百二十五石

◇雜穀收穫高 …

▲蠶業

◇繭生產額 三三、五一二圓 價格二六、九五二圓

▲工業

◇工場數=八個所 總資本=三一九、〇〇〇圓 年生產價格=一一九六、四九四圓

教育機關

校名	生徒數
裡里公立農林學校	五二一人
裡里公立高等女學校	二〇七人

初等學校

小學校合六校에 生徒數 一、〇二二人
公私立普通學校合三二校에 生徒數 六、九三三人
幼稚園合二園에兒童數 八六人

立志傳中大事業家 育英界大恩人 宋炳雨翁

翁은 全北에서 宋參奉이라면몰은人士가 업스리만큼 特志의士이다 當年六十四歲의 老年으로서 青年을凌駕할 事業熱과精力을가지고 尙今도 不休不息의活動을繼續하야 萬人崇拜의的이되여잇스며 全北社會에서 前無한美擧를爲하야 各方面의 讚揚을 홈로밧고잇다 翁은 元來天稟이仁慈厚德하며 寡言鄭重하야 同情心이 豐富하고 事物에達觀하야 有爲한事業이라면 巨金의喜捨를不惜한다

翁은 時代를 깨달은바잇서서三十當時에官僚를辭하고 歸鄕하야 一路致富에注力하야 血汗에저즌實跡을남기고 千辛萬苦의難關을經하야 翁의今日의 六千餘石이라는 巨富를일우엇다 그러나翁은 眷間의 致富者流와는달리서 一般致富를 完成한後에는 오로지社會事業에 全力을 傾注하고잇스니 翁의事業에서 몃가지만들면 (一)、翁은卓越한 先見을가지고 七八年前에 郡民이 夢想치못하든 王宮水利組合設立을主唱하야 一般의 熱烈한 反對가 잇섯슴에도 不顧하고 翁의犧牲과가튼意志는 期於코 初志를貫徹하고말엇다 그리하야 王宮全平野는水旱兩食의 金田玉土化하니 翁의 當地農民大衆에게 끼친바功勞는 絕大하다 이제面民들이蹶起하야 翁을頌德하는뜻에서 세워논頌德碑文을보면 日一、竣成水組 始謀終協。二、隨處灌漑 從便開闢。三、昔夏抗旱 今見均洽。四、不違農時可藩功力。五、他人未遑 唯公先覺。六、感謝其勞 頌此片石。

(二) 全北에서뿐아니라 一般으로 育英事業이다 王宮公普校가 十年前에 廢校에 至할時에 一金 參千圓을 喜捨하고 其後 最近까지 屢次千餘圓式을 捐出하야 同校를 盤石과 가티 만드러서 四年制를 六年制로 完成하엿다

伊東面公普校에 昭和十二年度에千餘圓의時價土地를 同校의 新築敷地로서提供

三箕面公普校 昭和十二年度에五千餘圓을寄贈

飛鳳面公普校에 昭和五年度에五百餘坪의土地를 同校의新築基地로서 喜捨

參禮農業實修學校에 五百圓을寄附

裡里農林學校에 創立當時에 數百圓을喜捨

前記와如히 巨額을 教育界에 喜捨한것으로보아서 翁의 第二世國民에 對한關心이얼마나 深遠한가를 窺知할수잇다 翁은 實로우리全北教育界의 大恩人이다 翁의美擧에感激한 社會各方面에서는 猛然蹶起 翁의業績을 千秋萬代에남기기爲하야 銅像을王宮面公普校庭에 建立햇스니 我利我欲에눈코를 뜨지못하는 諸君들 翁의銅像에서 배홈이엇지 안함에 足하다

(寫眞=宋炳雨氏의銅像)

名◇勝◇古◇蹟

▲彌勒塔 本郡金馬面箕陽里所在 馬韓의最初箕準王의子 武康王이 民心을收攬하야 立國한바 距今二千百二十餘年前에 王은善華妃와가치 獅子庵에 行幸코저龍華領大池邊에 至하얏슬때 池中에서三體의 彌勒이 出現함을 보시고 此를奇異하게녀겨 此地에寺院을 建設할새 法師의 神通力으로 一夜之間에 移山埋池하야彌勒寺를 建設하고 三體의佛像을 安置하얏다고한다 彌勒塔建築時代等은 可考할 文獻이업스나 아마도 同寺의 建築後의일일것이다 同塔은 規模의大로나 建築의妙로나東洋第一로 高四十三尺 周圍百尺 石造 六層의塔으로서 古代遺蹟의 貴重한建築物이다 (▲寫眞은 彌勒塔)

▲箕準城趾 或曰馬韓時代 又曰百濟時代築造云하는데 金馬面龍華山頂海拔四百三十米突 高八尺 周圍三千九百餘尺이다

▲王宮塔 王宮面王宮里所在 全部花崗岩의 五重塔인데 百濟의衛士가高麗統合에對한 政治的陰謀로 此塔을建立한바 塔의完成日부터 三日間은 完山全城이晴墨化하얏다고도 傳說이잇다

▲八景 馬耳初月 竹林投鳥 上元暮鐘 獅子臨雲 俗山落雁 西山落照 春浦歸帆 長湍探蓮

▲三奇 三栗、浮石、衛松

朝鮮第一의 涵碧亭

風光明媚한 王宮面 王宮水組의大貯水池畔에 宏大華麗한一亭子가잇서서 詩人墨客과 佳人才子가 不絕雲集하니 이 有名한涵碧亭이다 此는翁이二萬圓의 大金과 一年餘의時日을費하야 今春에 落成한바로 翁은이곳에서 晚年을休養하다가 別世後에는 또길혼亭子이供한다는 社會에提을爲하야 全朝鮮各地로부터 雲集한頌德詩의하나를揭載하면이러다

一、一朵芙蓉出上峰、新亭宏元廣應容。二、現形案石切字開程勢護重。三、積水有湖龍得領、空山不俗鶴巢松。四、表庇心境清如許、風指當年莫與從。

(寫眞은 涵碧亭)(宋某氏作)

青年政治家인 全北道會議員 趙海英 氏

今年五月全北道會議員改選當時에 趙海英氏의일홈은 너무나有名하얏든것이다 氏는 아즉三十의약관으로서 堂堂히出戰하야더옥이나 今年과가튼益山의空前의白熱戰을 克服하고 壓倒的人氣로最高點으로 當選의榮譽를바더섯든것은 世人이周知하는바어니와 事實은 드듸여各方面에 적지안흔 『센세순』을이르키여 氏의卓越한政治的天分은 一般人士를놀내게하지 안코는 마지안햇다 그리하야氏는 우리益山뿐아니라 全北의唯一無二한青年政治家로 自他가共認함에 至하얏스니 氏의出馬는實로 그時宜를得하얏다할수잇다 그것은 現下 新興朝鮮의現實이 青年政客을 要求하기때문이다

氏는 在野當時부터 道政에多大한關心을가지고 그 資料에잇서서 一般的인것과特殊的인것을 蒐集하야不斷研究思索하야왓다 이제 氏의 道政에對한抱負一端을 披瀝하면『道民生活의 安全』을主眼으로하야 一、都市農村間에잇서 經濟的 文化的 施設的對立의 調節 二、道民及地方的負擔의公平又는輕減 三、貧民及失業者救濟의 社會政策의徹底 四、農村의根本的改設 五、義務教育制實施 六、初等教育의擴充等으로 今後道政壇上에서 氏의讀讚侃侃의議論은 크게期待되여마지안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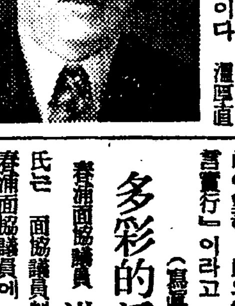
氏의略歷을紹介하면 咸羅의大德望家요 大地主인趙容肇氏의第二男으로서 理智聰明하야 明哲한 政治頭腦를所有햇슬뿐아니라 溫厚寬大하야 智德과資産을兼備한 當年三十歲의青年이다 일즉 公普校를거처서 京城第一高普를 拔群의 成績으로 卒業하고 渡東하야 早稻田高等學院을 優秀한 成績으로 修業한後 學校나 理論的探求에만 滿足할수업는氏는鄉里에도라와서 農村啓發에뜻을두어 現在에至하얏는데 咸羅消防組頭를爲始 咸羅面協議員等의現職에서 今年에는全北道會議員으로推擧되엿스며 社交界의花形이다 大小會合에氏의 風貌를보지못하는곳이 업거니와 湖南産業株式會社取締役으로 實業界에도 그華美한手腕을 휘두르고잇다 (寫眞은 趙海英)

農村啓發의指導者 面協議員 吳普善氏

拔群의手腕을가지고 農村啓發 實踐躬行을爲하야 第一線에서 활동하는 吳普善氏는 當年四十歲壯年으로서 現在王宮面協議員、兒童保護者會長、參禮金融組合評議員、王宮水利組合評議員、王宮振興會長等諸職에在하야 可謂寢食의 餘暇가업시 活動하고잇는것은 自他가共鳴하는바이어니와 氏는 就中農村振興에 全力을傾注하고잇스니 氏의抱負의一端을披瀝하면 農村振興의先決은 一、精神總動員이요 二、物質開發이다 이條件을培養 實現함에는 勤勞 愛護하고 協心一體相互扶助의 精神을振興하지안코는 안되리라 그리하야 農民의 道義觀念을 깨우칠때에비로서 物質開發도 隨伴할것은 必然이다

氏는 熱烈的實質主義로 形式主義를排斥하며 教化運動을歡迎하야 飛躍的支配를 積極的反對한다 故로 當局의 缺點잇는指導方針에對해서는 現實的理論으로써 肉迫함도 한두번이아니라한다 實로 氏의將來에는 全郡民의 囑望이만타 (寫眞은 吳普善氏)

樂天的政治家 全北道會議員 蘇鎭文 氏



누구누구하여도 益山의龍兒는 우리 蘇鎭文氏이다 그가가진政治的手腕도는 社交에能通함도 氏에게在意를잇글게하는 예추럼金보다도 그것이 一般의關心을사게되는것이다 氏는언제나 어데서든지 누구를맛나든지 樂天的이오 快濶하고 유-모어가잇다 氣慨는 活放하면서도 어딘인지모르게 미듬성이잇는분이다 溫厚한 實한中에도 快刀亂麻를 버히는 듯한快然한 決斷性이잇다 氏의 이러한性格은 過去의業跡이 어렵잘證明한다 八峰面長二十四年間에 그治蹟은枚擧하기難하다 交通整理、鋪道等의 顯著하거니와 初等教育機關의 整備에努力한것은 大書特書할만한功績이다 現 八峰公立普通學校의 六年制昇格(一萬七千餘圓으로 校舍改築等) 同校의前身인 八峰私立學校가 大正十年에開校以來 現在의公普가되기까지의 氏의盡瘁는 그야말로 熱과誠의結晶이엿다——現在는 八峰面協議員으로서 지난五月道會議員에 當選되야 道政壇上에 氏의活躍을보게되엿다 道政에對한 氏의抱負를무르면『無言實行』이라고 簡單히끈코만다 (寫眞은 蘇鎭文氏)

多彩的活動家 春浦面協議員 洪鍾柱氏

氏는 面協議員制度實施以來當選되야 現在에 이르럿다 이外에도 春浦公立普通學校學務委員、益山金融組合長、全益水理組合評議員、益山郡農村振興會委員等 各方面에 活躍하는 多角的活動家이다 이러한 職與만 가지고도 氏의人物을 洞察할수잇는것이지마는 氏는特히 農村振興의 第一線에서 猛然奮鬪하고잇다

"不言實行"을못토 全北道會議員 片桐和三氏

氏는 新潟縣協野町出生으로 士族의 出身이다 氏는大志를품고 明治三十九年에 渡鮮하야 爾來地方民을爲하야 各方面에잇서獻身努力하는것은 周知의事實이거니와 氏의民族的差別觀念이업는것은 特色이다 氏가渡鮮後過去三十餘年間의 重要功績은 益山郡黃登面에서 農場을經營하면서 臨益水利組合設立을成하고 黃登學校組合管理者 舒川水利組合長 全北道議員等의 地位에 推擧되며 産業、教育、政治、社會等各方面에잇서서盡瘁하고잇는것이다 特히 長項地方의 土地改良 市街地施設等은 全혀氏의努力의結晶이며 京南鐵道用地에 數百坪을寄附하고 裡里農林學校、黃登公普校、神社等設立에 努力하야 氏의社會事業은 實로枚擧하기 難하다 明治十四年以來 朝鮮總督府勤務 全北知事 赤十字社其他 各種團體로부터 教育、產業、金融 水利其他事業에亘하야 各各表彰을밧은바잇다 氏는世上의空論을 反對하고 오직不言實行을 絕叫하나니 氏의 道政에期待되는바만타 (寫眞은片桐和三氏)

社會奉仕의富農場 主任 李源鎔氏

希世의 犧牲的社會奉仕만을 爲主로하는 富農場은 社會的經濟的道德的存在로서 더욱나른 光輝잇는存在다 本農場은 百五十町步의土地로 年三千石의秋收와 一家費用朝四百圓의 收入에不過하는 一小農場이나 大農場이斷然教訓바라야할點이잇나니 이農場主는田中미요조지(ミヨツチ)라는年老한 간얌핀一女性이다 同女史는 天稟이 仁慈厚德하야 本農場年收入의利益全部는 每年公共事業에 提供하는바 將來의遠大한 計畫이잇스니 即昭和十四年에는 裡里邑에 萬圓을 同女史의 死後에는 扶安郡內 十町步는裡里邑에 二十町步는 故鄉인大島郡屋代村役所에 十町步는鄉里小學校에 沃溝郡五十五町步는鄉里의各學校基本金으로 分與할方針이라하야 資源의거의 全部를 社會에提供하는 同女史의그윽한事業에는 一般의 讚揚이만타 그러나 이곳에特記할것은同農場이 負債의過重으로因하야完全히破産의地境에陷하얏슬때에 同農場現在主任으로잇는 李源鎔氏가 斷然蹶起 負債整理를 十五個年으로定하고 昭和八年度以來 不眠不息의 悲壯苦鬪로 同農場의基礎를 確立하야 不遠한 將來에 負債는 整理되리라하니 同農場의 全事業은 實로 氏의非凡한 手腕과 獻身的努力에 負함바라고 아니할수업다 (寫眞은 富農과 田中미요조지女史)

醫療界의明星 三山醫院長 金炳洙氏

元來裡里에는 病院이 만키로 有名한곳이지마는 裡里人士의 頭腦에 기피백혀잇는것은 金炳洙氏의 經營하는 三山醫院이다 氏는 일즉이 京城세부란스醫專을 卒業한後 丁七年間이나 同醫院을 經營하여오는터이다 氏가 基督信者로서 對客에 親切하고 溫厚한 性質이 그技術과아울너 今日의 三山醫院의 盛況을 일우게되엿스며 氏는 仁術의 職分을 잇지아니하야 無料施療를 때때로 行한다 至今으로부터 十五年前부터 裡里幼稚園을 設立하얏고 五年前부터는 光照女塾을 經營하야 貧民子弟教育에 貢獻함이 多大하다 뿐만아니라 氏는 學校評議員、曾校後援會長、裡里俱樂部會長、世尊同窓會全北支會長、耶蘇敎會長老、基督青年勉勵會裡里聯合會長老 各團體의 指導者가되여잇다 이런것을 通하여볼지라도 氏가 얼마나 裡里社會의重鎭인가를 알수잇슬것이다 (寫眞은 金炳洙氏)

고무工業界覇者 天一고무會社 取締役支配人 金奉九 氏

天一고무株式會社의 製品이 品字票는 그品質이 堅實美麗하야 全鮮에著名한지己久인바 賣上量의飛躍的發展은 南鮮에잇서서斯界의 王座를占하야서 어제는全鮮制覇에로 進軍하고잇다 同會社는實로破竹의勢로 飛躍又飛躍의 過程을發展해왓다 現在社長金英俊氏가 昭和七年에 爺山三和고무株式會社를脫退한後 鱗水에다 工場을新設하야 翌年에는 平壤大同고무工業所設置分工場을 其翌年에는 大洋고무工業所를買收하야서 現在天一고무裡里第一、第二工場을 設置하얏스며 昭和九年에는 京城에 翌年에는大邱에 同十一年에는釜山에 그分工場을 設置하얏다 每日總生產量은 四萬餘足에達하며 總職工四千餘名을 使用하는대 特히裡里第一、二工場은 어번에合併하야 業務를擴大코저 目下煉瓦製工場을新築하고잇스니 竣工이되는때에는 近代工場의 面目이躍如할지니 商工業이 貧弱한우리裡里에잇서서는 一大壯觀이될줄로밋는다 이는오로지 同會社取締役支配人 金奉九氏의 卓越한工業經營的頭腦와 能練한商業的手腕에依하는바만치 赤手空拳으로 數次고무界의 覇權을쥐인 社長金英俊氏의 縱橫無盡한 機智와 非凡한手腕에 緣由한바도만타 (寫眞은 金奉九氏)

益山郡機軸을掌握 豪膽無敵한 朴智根氏

氏는 志操高尙 氣慨豪壯하며 高邁簡直한人格과 明哲한政治的頭腦를所有하야 德과義를兼備햇슬뿐아니라 社交에잇서서 能小能大하고 辯說이 熟達한 當年四十九歲의 達觀한活動家다 氏는現在黃登面에서 酒造와多角農을 經營하고잇스나 益山郡內에서 업지못할 重要人物이다 氏의各關係方面을보면 益山郡農會評議會 益山小作委員會委員 益山郡所得稅調査委員 黃登面協議員 全北畜産會社支配人 黃登金融組合監事 益山郡酒造組合長 南鮮麴子會社長 裡里放送協會委員 黃登公普校學務委員 黃登產業株式會社取締役 益山郡振興會委員等其外에도 數個所의團體로 諸方面에잇서 圓滑하게進行하야 가는것을보아 氏의 政治的手腕과 卓越한 識見을 可知할수잇다 氏는第一回 全北道會議員에當選이된爾來 道政을 爲하야 寢食을不顧한것은 周知의 事實이어니와 恒常 合理的能辯으로道當局을 肉迫하야 在政當時에는 爆彈議員이라는 別名까지듯어 萬年道會議員으로 信任하얏든것이 諸般의 微妙한 政治的 關係로 今回道議選擧戰에서는 次點이되고말엇스니 듯잇는者는 惜感을 不禁하나 氏는鬪志滿滿하야 將來할選擧戰을 노리고잇다 實로益山을 代表함에 足한人物이다 (寫眞은 朴智根氏)

溫厚篤實한隱士 安尙默氏

氏는 本籍을金堤郡白山下亭里에두엇스나 子弟의教育을爲하야 現在地인裡里로 轉居하게되엿다 年前에는本報裡里支局을 經營하야 言論界에서活躍한때도 잇섯고 鄉里의白山公立普校設立當時에는 巨額의喜捨로써 教育界를爲한 熱情의發露도 잇섯스나 大體로氏의性格은溫厚篤實하야 只今은馬洞町自宅에서 隱居生活로 閑日月을보내고잇다

多角的活動家 尹耆炳氏

氏는 當年四十一歲의 壯年活動家로서 雲洲面協議員으로 雲洲面行政을 爲하야 努力한바만 헛스며 雲東下公立普通學校評議員으로서 第二世國民의 育英事業에도 不少한 努力을했으며 雲洲人士의 周知하는바이다 氏는 現在에는 海陸物產委托貿易商을 經營하는 一方 湖南一圓을 支配하는 日清生命代理店長으로서 또는 番農組合理事로서 多方面의 活動에 바뿐 중에도 育英事業에 不絕히 努力하는 中이라하며 令允許庸直氏도 그의 피를바든 青年實業家로서 多大한 囑望을 밧고잇다고한다

(繼續五面)

祝 益山地方躍進號發行

舊裡里驛前 田炳順

裡里榮町 三友洋服商會

黃登驛前 臨益水利組合

裡里曙町 高級中華料理 大萬食堂

裡里榮町 中華料理 共和春 主 蕭銘勳 電話二二三番

參禮面議員 權日用

咸悅驛前 迎春堂藥房 主 朴恒來

臨陂面議員 金榮柱

咸悅面協議員 柳喆鎬

裡里日出町 高興信

黃登面長 金建春

裡里旭町 柳重哲

龍安面七牧里 李弼榮

裡里大正町 益沃水利組合

裡里驛前 裡里タクシ

北一面 職員一同

全北道會議員 金演植

八峰面長 梁在珉

全貌를紙上에再現 凝視反省이緊切

益山郡守 吉津五郎

今回裡里支局이 本郡紹介版發刊을企圖한것은참으로 適切한 時宜로하야 慶賀에不堪하는바입니다 本郡은半島에잇서農業先進地로 自他가共知하는바어니와 今後우리 改善工夫를要하는바 多大한데此際에잇서서 益山郡의全貌를 紙上에展開하야 此를凝視하고 反省하는것은 將來에의躍進의第一步라고思하는바입니다 貴紙가地方民의조흔 指導者임과同時에 日益貴社의發展을 企願하고이것으로써 祝辭에代하는바입니다

裡里發展의先驅者 手腕家 坂井信藏氏

裡里發展의 先驅者 坂井氏는 福岡縣山門郡三橋村의 士族出身으로 日露戰役에 出戰하야 少佐에 昇格, 勳五等功三級金鵄勳章을 授하얏다 氏는 朝鮮農村開發의 必要를 感하고 大正四年에 來裡하야 農場을 經營하는 廣汎한 土地를 所有한 地主이다 氏는 裡里發展을 爲하야 社會的貢獻이만헛스니 現在農林學校의建設 東拓支店의設置 萬頃江의 改修等은 氏의 努力에 負한바 多大하다 與人交際에 圓滿함과 政治的手腕을가진 氏는 裡里初代面長으로 推擧되며 學校組合會議員으로 敎育方面에 貢獻한바도만흐며 全北道官選評議員에도 選出되고이어서 全北道道會議員으로 被選되며 全北全體에亘한 地方改良、産業發展 其他社會의 公益事業等民衆의福利增進을爲하야 奮戰해오든바 後進의昇進을爲하야 今年에는 政界에서 隱退를햇스나 豐富한經驗과 深遠한智略을 有하야 益山大小事에잇서서 업지못할元老格이다

孝行至極한 邑會議員 文炳玉氏

裡里에서 文炳玉氏는그일홈이 너무나著名하다 그것은 氏가邑議에連續五回當選하야 現在裡里邑議員으로서 邑民의福利를爲하야 奮鬪努力한다는點에도잇거니와 氏는天稟이高潔하며 與人交際에잇서 人間味百%요 特히過去至實을效則하야 弄雛舞班의孝行을다하기때문이다 實로裡里에잇서서 模範的일뿐아니라 업지못할活動家이다

青年實業家 柳公建氏

湖南線 咸悅驛에서 下車하면 精米 肥料雜穀、內外雜貨、추럭크運送等을 羅列한 五柳商會의 大看板이보인다 이것이咸悅의 青年實業家 柳公建氏의經營하는 店舖이다 氏는 商店經營의 一路에만 거니는것이 아니라 咸悅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의 公職을 가젓스며 咸悅面協議員을 지낸일도 잇섯다 氏는 틈만잇스면 經營理論探究에 專力하는等 어듸까지든지 現代青年의 氣質을 가지고잇스며압흐로도 農村繁榮、農民生活安定에 留意하야 마지안는다한다 (寫眞은 柳公建氏)

企待가만흔 邑會議員 金大熙氏

氏는當年三十七歲의 有爲한青年으로서 일즉이 東京留學을多年間한後 鄕里에歸하야 實業第一線에서 活動하고잇든바 裡里邑會議員으로서 邑政에參例하게되以來 青年間邑民의 全體利益을爲하야 努力을不惜하엿다 그리고氏의一擧一動은 愼重을期하야 可히模範할바만흐니 一般은 信賴를만히함과 同時에 氏의將來에企待가만타

田園의哲人 朴東鎭氏

氏는 高敞의出生으로 八年前에 東京農業大學을 優秀한成績으로맛춘 當年三十五歲의 有爲한青年이다 學窓을나오자 抱負한바의理想을 實現하기爲하야 裡里古馬洞町에 耕地六千五百坪의 園藝를 經營하면서 農民으로서 보레 몃을하는外에는 오직眞과 愛 그리고實踐躬行이 잇슬뿐이다 그리하야 哲人이라는 別名까지 듯는데 氏의經營은 成績이優良하다

實質剛健한 青田竹治氏

陸軍大尉 正六位勳五等의 氏는 二十五年에亘한 軍隊生活로 性質이 實質剛健하야 朝鮮에잇는民으로서야금 圓滿無缺한人格을 兼備케하얏다 氏는일즉 南朝鮮大地主인 白南信氏의 華星農場經營을 主宰하야 毫末의齟齬가업시 統制한 出衆의經營的手腕을 發揮햇다 그리고全北道會議員으로 道政壇上에서 道民就中貧農의 生活向上을爲하야 氏의獨特한獅子吼로 當局者를 肉迫한일도 한두번이아니엿다 그外에도 氏의活動은 多方面에亘하야 敎育、金融、企業界에도 重鎭으로잇스며 一路社會奉仕에 奮鬪努力하는것은 自他가共認하는바이다 氏의故鄕은 福岡縣拍島郡飯豐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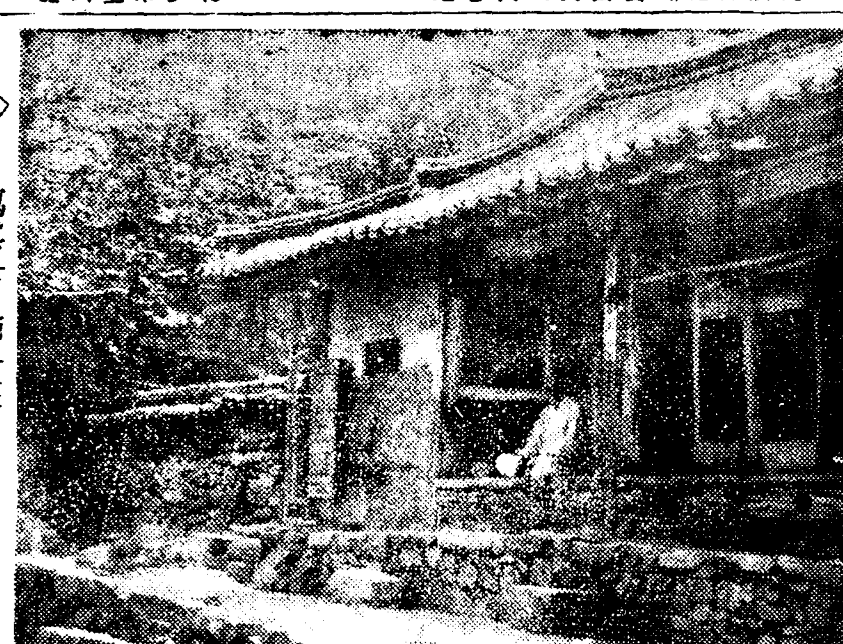
氏는性稟이氣慨豪壯하야 與人交際에잇서서 快活圓滿하며 公益事業의精神이豐富하야 社會事業이라면 自進하야 物心兩面의犧 捨한것을 筆頭로 幼稚園 公立普通學校等育英機關은勿論 癩病院에도 數百圓을 喜捨하야 顧療養協會長으로부터 感謝狀까지바덧다한다

慈善博愛家 朴老宗氏

氏는 沃溝郡瑞穗面平倉里出生으로 現在面協議員과振興會會長의職에잇는데 天稟이寬厚仁慈하야 一般慈善事業에盡瘁하는 特志의士이다 일즉氏는 貧寒한家庭에서 生長하얏스나 勤勉力行으로 自手成家한後에 크게느낀바잇서 『互相扶助』의精神을高揚하야 窮來貧民救濟에 全力을다해오는데 昭和九年度에는 七十餘戶의一期戶稅全部를 負擔한일도잇스며 今春에는 無地農家十餘戶에 四十餘斗落을 分與小作케하야 流離破産을救햇스며 特히農村振興에盡力하는바 一般은 氏의德行을 한량업시讚揚하는터이다 (寫眞은 朴老宗氏)

壯年活動家 申泰重氏

氏는 當年五十一歲의 壯年活動家로서 昭和二年에 料理店領南館의 經營을 비롯하야 일즉이 面協議員으로 當選되야 裡里의公益을爲하야 奮鬪한것은非一非再엿다 氏는實業界에 盡力하는一方滿洲及東京等地를 屢次視察하야 見聞과 知識을 넓히는同時에 社會事業에도 多大한 努力을 하여왓다 消防組에 千餘圓을 喜捨하는等 社會事業도不惜하나니 氏의 今後活動에 期待가더욱만타 (寫眞은 申泰重氏)



◇……寫眞은 獅子庵

佛敎革新實踐者 佛法研究會 朴重彬氏

氏는 全南靈光郡白岫面吉龍里出生으로 現在益山郡北一面新龍里佛法研究會의 宗法師이다 氏를 理解하자면 먼저佛法研究會를 分析하는것이 쉬운길이나 同會의合理的分析은 到底히 적은紙面으로는 不可能한일에 屬한다 故로 이곳에는 다만 氏의生活一端에만그친다 氏는 一見政治家的타입이다 그러나 哲理에深奧한 宗敎家로서 雄大한抱負를가진 徹底한活動家이다 氏는二十年前에 在來佛敎의 時代的終焉에立脚하야 過去의 諸般陋習을 合理的으로分析한後 斷然革新을高揭하야 佛法研究會를組織하얏스나 同會가標榜하는바 宗敎의時代化 大衆化 物心兩面의開發 一切迷信의打倒 精神修養 事理研究 作業取捨等 實로民衆의 現實的生活意識을 反映하야 在來宗敎의 形而上學的神秘的形態에서 完全脫殼한 大衆的宗敎라아니할수업나니 이意味에잇서서 氏는 朝鮮佛敎史上에 루-테르라하야도 過言이아니다 氏는如上의 新宗敎를創設하고多數大衆을 包容한佛法研究會의總指導者의 地位에잇것마는 勤儉質素하며 私有를忘却하야 寸土의所有와 一分의私蓄이업나니 그夫人梁氏는 尙今도방아를파며 淸貧한生活을繼續하고잇다 (寫眞은 朴重彬氏)

實業界重鎭 金千煥氏

氏는當年三十歲才의壯年임에도 不拘하고 咸悅의實業界에 뚜렷한 足跡을 남겨노흐엿다 今夏에는湖南産業株式會社를 發起創立하야 現在그幹部의 一人으로活躍하며 地方農民의 副業奬勵를爲하야는 繩子叺商會를 組織하야 生活向上에 一助가되게하며 其外精米業、肥料業을經營하야 咸悅産業界에는 確乎한實在가되엿다

紙物商의元老 蔡君先氏

全北은紙物로 全朝鮮에有名하거니와 蔡君先紙物舖라면 裡里뿐아니라 隣近邑里에서도 모르는사람이업슬것이다 紙物廿五年間에 七轉八起 氏의苦心談은 一篇巷記이다 그러나只今은 嚴然한存在가되엿스니 裡里特産并紙油物(장판紙)을 製造販賣하야 그聲價가 자못놉다

蔡君先紙物舖는 裡里本町一丁目에 잇다 (寫眞은 蔡君先氏)

唯一의少壯實業家 太陽生命保險 全州代理店長 宋炳宗氏

本郡은 農業地帶로精米業의原料인 米穀이豐富함에着眼한 金馬宋炳宗氏는 當年二十九歲의少壯으로서 金馬와全州府內에十數萬圓을 投資하야 大規模의 精米業을經營하는바 그天品이 高潔無垢하고 勤勉着實할뿐아니라商業的手腕이卓越하야 優秀한成績을내이는 實業界의寵兒다 氏는 일즉全州高普校出身으로元來營利에만目的하는 巷間의流輩와는 그 抱負를달리하야 沈滯되여잇는 益山地方의實業을振興식히기爲하야 方今第一線에서奮戰하든터인데 一方으로는斯界의專門知識의修養을目的하고 文獻的資料의蒐集、研究等에도努力하는等 實로精力的이며 潑剌한生活의所有者이다 그外에도 氏는 保險界에도긴바잇서 現在太陽生命保險全州代理店을經營하야 斯界에서도氏의敏活한手腕은 縱橫으로發揮되며拔群의優良한成績을 내이고잇다 前途洋洋한 氏의將來는囑望이多大하다

天才的青年商業家 姜整熙氏

氏는 少年時代부터 商業에從事하야 赤手空拳으로 自己의前途를 開拓하야 [illegible] 을보앗스나 [illegible] 努力을 試驗햇나니 六年前에 大火災로 商品은 全滅이되고말엇다 그러나氏의 百折不屈의精神 商業의天才的手腕은 [illegible] 年間에 [illegible] 回復하고도 湖南에잇서서 小賣商의 王座를 [illegible] 하야 年賣二十二回式의 『츠럭크』를利用하야 多量으로 商品을仕入하며 一方으로는太陽生命保險會社益山代理店을 經營하야 多端한活動을하는中에도 틈만나면 『바이올린』을研究하야 情緖生活을 潤澤하게하나니 當年三十三歲의 氏의將來는 實로期待되는바만타 (寫眞은 姜整熙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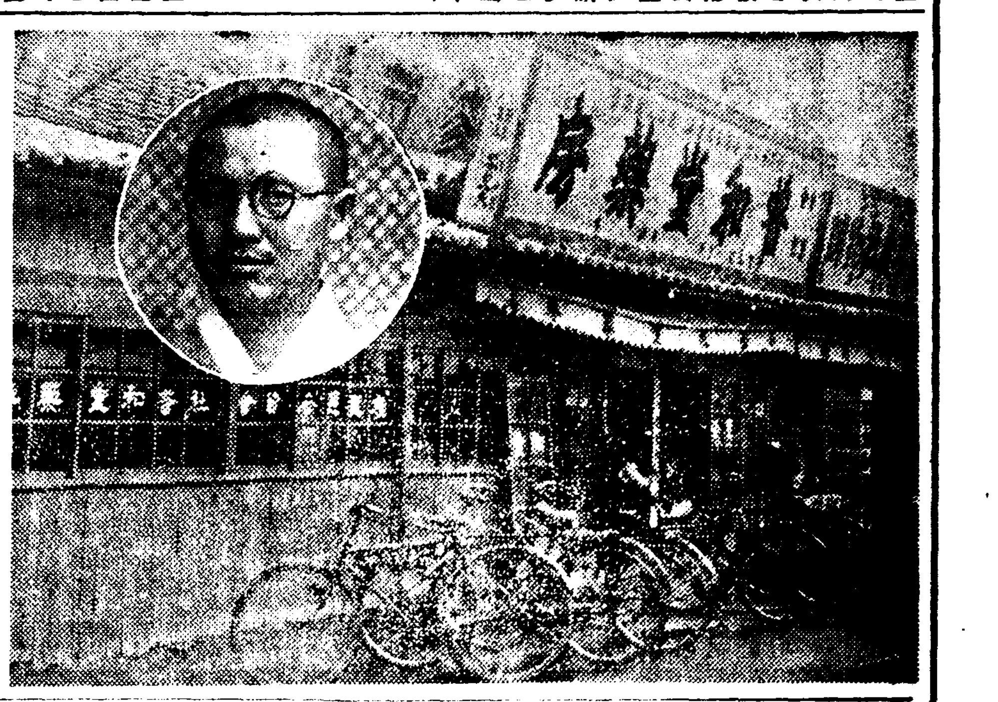
湖南鑛業家 孫均玉氏

氏는江景出生으로 明治四十三年 官立師範學校를卒業한後 多年間兒童訓育에專心한 當年四十九歲의壯年이다 大正九年에는 無試驗檢定으로 官立高普敎[illegible]여 大正九年에 全州官立高普敎諭로昇格되엿스나 昭和元年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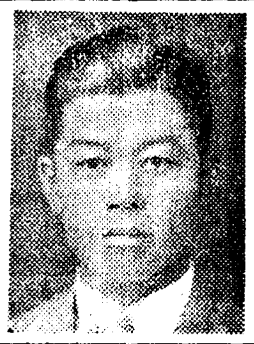
從來鑛業에從事하야 現在 金堤郡=龍池面 白鷗面 鳳山面 金溝面 完州郡=伊東面 助村面 赤裳面等七個所의 優秀한鑛區를所有하야 專門家實地調査에依하면 埋藏量三千萬圓이라한다 今秋부터는 一齊着工하야 最新式科學的經營法을利用할터이라고한다 氏는 將次京城에 住所를두고 南鮮에는砂金 北鮮에는石金에注力하야 一大活躍을한다고한다 (寫眞은 孫均玉氏)

曾和堂主務 李亨天氏

氏는 佛法研究會益山部에서經營하는 裡里曾和堂의 主任이다 氏는 過去數十年間을通하야 同公益部第一線에서 奮戰하얏스니 同會公益部가 日加日發展하는것은 氏의努力에負할바만타 氏는 用意周到의 精神과 經營的手腕을 所有하야 四年前부터 開業한바 初年에 年賣上高三千圓에不過하든것을 現在에는 三萬四千餘圓을내여 益山郡內에서는 乾材局으로도斷然王座를占하고잇지만 漢方治療로서도 他의追隨를 不許한다 그것은 同堂에서는 一年以上이 지난 一切의藥材는 바리고 恒常新鮮한材料를 使用하며 治療에잇서 百發百中할뿐아니라 一般貧民에게는 無料施療를 하기때문이다 同堂의前途는實로洋洋하니 主務代表인 氏가 同公益部를爲한 犧牲的奮鬪와 智德을 兼備한當年四十五歲의 壯年인까닭이다 (寫眞은曾和堂과李亨天氏)



土肥湖南代理店長 吳時泳氏



氏는現在八峰面協議員이다 昭和八年八月一日부터 土肥郵油發動機湖南代理店을 經營하야 農具、精米機 山陽『井가름工』『차부』各種附屬品一式 柴田式麥搗機、淸水式精米麥機等 天下唯一品을販賣하는데 그中에도 土肥發動機는 他機에比하야 燃料가 적게들며 馬力이 强大하고耐久力이 强하야 國産第一品이라한다 氏는어듸까지든지 顧客本位 信用第一主義로 압세워나간다고한다 (寫眞은吳時泳氏)

大地主熊本農場 農場經營의方針槪況

支配人 柴山鼎氏

本農場은 明治三十六年에創立되야 目下畓約三千町步 畑約二百町步 即沃溝 益山 金堤 井邑 扶安 全州의 六個郡에 各各特히集團한 一千二百町步의耕地를基礎로하야 積極的合理的經營下에 極力立體的經濟增收의 實績을내임과同時에 一層小作農三千戶의生活安定과向上을爲하야 全力을傾注하고잇다

(一)本農場은 人物에中心을두고 全鮮或은日本內地로부터極力有能의青年을擇拔採用하야 從前의所謂舍音制度를全廢한後 五十二名의職員이 各各責任區內에서直接指導督勵를 加하야써 此十年間에 約二倍의增收 即十年前에 反當籾二石五六斗乃至三石二三斗하든것이 現在에는 五石乃至六石二三斗의 成績을내고잇다 形式上으로는 小作이나 實質的으로는 全然直營自作과同樣의指導訓練을 勵行하고잇다 以上의 增産原因은 耕地整理와 耕地의集團化를 完成하고灌漑排水 肥培管理의 一切를指導監督함에 萬全을 期하엿기때문이다

(二) 本農場은 獨特한深耕의考案과 耕牛改良增殖에依하야五寸 六寸 七寸의步調로 深耕의徹底에努力하고 堆肥의增産及과 相伴하야 堆肥의增産使用 綠肥의栽培 畜代改良에改良을 加하야 所定의計畫은 成功으로進行하야 [illegible] 農村經濟의 充實向上에 貢獻한다고한다

(三) 다음에 副業의獎勵는本農場의 特色으로써 養豚(부구샤) 養鷄(白레구혼)의 改良普及에依한 自給肥料의 增産을圖하는一方 特히 滿洲國에로 大量輸出하는等 相當한利益을내며其他 繩 叺의製作에 資金의一時立替 養蠶의獎勵等 年中一家族의勞力을 圓滑하게 分配利用하야 增收增利를 圖하고잇다 要컨대 同一農場에잇서서 立體的 細作業作의 成績을내는 一方 各種의副業을 適當히配分하야 金融의 充實貸付의 償還에 依하야 自給自足의 實現을 圖하고잇다

(四) 最後로 農村振興의 重要한 一要件으로서 農民健康의 維持增進에 對하야 積極的으로 保健救濟指導上의 施設을 充分히하고잇다 一般大多數의 農民은 生活의 困難으로말미아마 治療의 道理가 全無함으로 本農場主多年의 宿望을 實現하야 再昨年四月부터 京城『세부란스』病院에서 醫師를 招聘하고 本、支場管內三千餘戶의全小作人을 一切無料診察을 하고잇다 將來에는 一步를 進하야 豫防醫學의 立場에서 井戶 炊事場 便所 沐浴場 運動場等의 改良施設 各部落巡廻指導를 行하야 衛生思想의 普及向上을 하야써 農民健康의 保護增進에 一層努力할準備를 着着進行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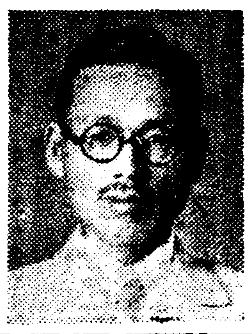
前述한바와가티 本農場은 그經營에잇서서 近代的 科學的方法을 適用하야 斷然標本的農場의 地位를獲得하고 群鷄一鶴의 優良한成績을내는것은 本農場職員들의 熱誠 小作人等의 忠實에負할바적지안치마는 그보다도 當農에잇서 深奧한科學的頭腦와 與人對事에잇서 圓滿無缺한 本農場主柴山支配人의 奮鬪努力의 結晶이다 그리하야 小作人은勿論 一般社會에서도 本農場의將來에對한 期待는 더욱큰바가잇다

裁縫界의王座 大昌미신商會

同商會는 東京『로라스미싱』會社의 朝鮮總代理店으로서 昭和十一年부터 經營하야 現在는 全鮮各地에 十四個所의 取次店或은代理店을 設置하고 直接使用하는 外交員만도 男子十五名女子三名의 多數로其勢가 자못嚴觀하다 『로라스미싱』機의 優秀함은 임이定評이잇는바 이지만은 特히堅牢 無聲 縫目一直線이요 鮮明堅固優美함은 그特色이라하겟다 同商會는 青年商業家崔玟煥氏의 經營하는것으로 氏는昭和元年 全州高普를卒業한後 一三年間商業方面의知識을 研磨하다가 現在의大昌『미싱』商會를經營하야 斯界의牛耳를쥐고잇다 (寫眞은商會와崔玟煥氏)

囑望의實業家 共信商會主 李圭昞氏

氏는 일즉 東京中央大學經濟科를마치고 歸鄕後一路農村開發에盡力하는一方 育英界에도貢獻이만흔바 淸利廣濟主義를가지고 裡里本町에서 共信商會運送部를經營하는데 氏의出衆한 商策과溫厚勤勉한性格은 同商會將來에對한囑望을 놉게한다 (寫眞은 李圭昞氏)



七顚八起로成功 當本洋服店主 金喆洪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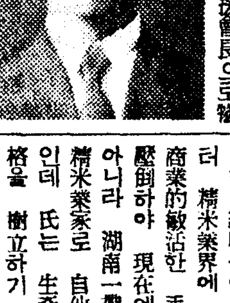
氏는益山出生으로 勤勉篤實한 三十六歲의 青年實業家다 氏는 일즉京城에留學하야 中學을中途에退學한後에 洋服界에 進出한바 裡里에서開業하자 失敗의悲運을當하고도 百折不屈의鬪志로써 京城에서 請負와實習을 거듭하야 自信이 잇고도 남을만한技術을 習得한後에 다시來裡하야 開業하고 薄利多賣와 信用本位로 一貫함으로 顧客이輻輳하야 同店의將來는 有望하다 그러나 同店으로만 滿足을늣기지안는氏는 元來그素質에따라서 社會事業에도 만흔抱負를가지고잇스니 도한期待되는바가잇다 (寫眞은 金喆洪氏)

健實한模範青年 宋炳週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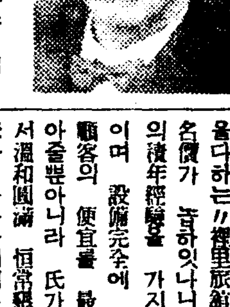
最近『에로』『그로』世界의 躍進은이따에 頻著하야 돈에自由가잇는富豪子弟들은 大槪遊興에陶醉하야 酒幕靑樓에出入하며 醉生夢死의 花巷樂一貫主義로 도만히잇는社會的現象의하나이다 그러나 富豪의子弟로서 年在二十三하야 이方面에는 一不投足하고 一路實業方面에만 活躍하는青年이잇스니 그는王宮面東津里宋炳週氏다 氏는일즉全州新興學校에 入學하야專心工夫하다가 家庭事情으로 因하야 中途에 退學한後 農村에도라와서弄鄕班하든老萊子를 效則하야孝行에出衆하며 農村開發에 盡瘁하야 오든바 實業에뜻을두고現在에는 金馬製造場을 經營하는데 優秀한 成績을내이고잇다 氏는溫厚着實하고 理智聰明하야 資産과品格이 兼備한囑望이多大한 青年이다 (寫眞은宋炳週氏)

穀物界에獨步 金龍出氏

氏는 黃登出生으로 性格이 溫厚剛直하고 商業的 手腕이 敏活한 三十七歲의 實業家이다 일즉이 地方의 宗敎發展을 爲하야 黃登里에 基督敎會堂을 建設하고 會勢擴張에 盡力하는 一方 米穀商을 經營하든바 時勢의進運과 商店의 擴張에따러서 湖南의關門인 裡里에 進出하얏스니 氏의 敏活한 商業的手腕은 드듸여 裡里米穀商界의 覇權을 掌握하야 店務는 隆盛擴充하야간다 도한氏는 幼時로부터 基督敎信者로서 斯界에 巨金을 義捐한것도 한두번이아니엿스며 特히 無依無託한 裡里孤兒院을爲하야 氏는 同院後援會長으로犧牲的援助를 하고잇다 氏의거룩한 뜻에는 一般의讚揚이만타 (寫眞은 金龍出氏)



保險界成功家 金楨敏氏



氏는 堅忍不拔 不休不息의活動家다 일즉 井邑公普校訓導로十餘星霜 敎鞭生活을하다가 九年前에 帝國生命保險正社員이되여 外交戰線에 奮鬪하야 四年前에 同保險會社의 裡里監督所長으로 任命되엿는데 今夏에는 [illegible] 現在 三十六名의 社員을 統率指揮하고잇다 此는오로지氏의 手腕과 拔群의實績을 낸까닭이니 氏는斯界에잇서서 成功家라는것은自他가共知하는바로氏의將來는囑望이多大하다 (寫眞은 金楨敏氏)

旅館界의覇王 裡里旅館 徐廷律氏

裡里라면 旅客이 頻繁하기로 有名한곳이니만큼 旅館이 雜多하기로도 有名한곳이다 旅館中에도特히 來客의 雲集으로 繁昌을다하는『裡里旅館』은 外地에名價가 놉하잇나니 그것은氏의積年經驗을 가지고 料理凡節이며 設備完全에 讀檢用意하야 顧客의 便宜를 最大限度로 도아줄뿐아니라 氏가與人對事에잇서溫和圓滿 恒常懇切하야 人情味가 가득하기때문이다 氏가斯界에잇서 覇權을쥐고 復日興盛하는것도 우연의일이아니다

洋靴店界의雙璧

堅牢本位의 新興洋靴店

裡里榮町에잇는新興洋靴店의製品이 堅實無比 優美至上하기로일홈이난것은 偶然의일이 아니다 同店에서는 元來高級原料와 熟練工을 使用하기때문이며 店主朴海根氏의 與人交際에서 나타나는 親切溫厚味와 率直勤實性이顧客을끌지안코는 마지안는다 이溫厚味와 勤實性은 氏의過去에잇서서 남다른 波亂曲折의生活經驗에서 由來한바이니 氏의人格的修養을 可知할바다 氏는薄利多賣 堅實優美顧客本位主義로一貫하야 現在斷然斯界의牛耳를잡고잇스니 不遠한 將來에店勢도大規模로 擴大하리라고한다 (寫眞은 朴海根氏)

信用本位의 三昌洋靴店

主 兪鎭坪氏

裡里의三昌洋靴店이라면 信用할洋靴店이라는것은 누구나다肯定하는바이다 店主兪鎭坪氏는 耶蘇敎篤信者로서 積年의技術的經驗을가지고 조흔原料를 使用하야廉價로 提供하야서 顧客의信用을獲得하고 現在郡廳指定洋靴店으로되여잇스니 同店의製品은堅美하야 信用을、本位로하느니만큼一般의 好評이 藉藉하며 斯界에잇서覇權을 掌握하고잇다

001540

保險界一人者 林志洙氏

氏는 忠淸道出生으로 性質이剛毅果敢하야 敏活한手腕을 所有한 靑年活動家이다 일직이 太田、群山等地에서 多年間警察官吏生活의 豐富한經驗을어든後에 昨年부터 日本生命保險會社의正社員으로 外交戰線에進出한바元來氏의 自由自在한機智와 敏活圓滑한手段은 超記錄의募集額을내여 本店으로부터 表彰을밧는 一方 同保險會社의 裡里班事務所長으로 任命되엿다 氏는同所에서 不休不息의奮鬪로 最優良의成績을내이자 昇格하야 一躍同會社의全州事務所長으로 任命되니 氏의乘勝長驅의優良成績은 爾他의追隨를不許한다 實로氏의前途는洋洋하다

精米業界의王 昭和精米所裡里支店長 趙遠氏

氏는 當年四十三歲의 壯年活動家로서 現在株式會社昭和精米所裡里支店長이다 일즉이 東拓會社에서 十餘年間 全北商事會社에서 十餘年間을 勤務하야 豐富한 經驗을어든後 大正九年부터 精米業界에 進出한바 氏의商業的敏活한 手腕은 斷然他를壓倒하야 現在에는 裡里에서뿐아니라 湖南一帶에서도 優秀한精米業家로 自他가 共認하는바인데 氏는 生産者의 正當한價格을 樹立하기 爲하야 約二年間은 犧牲的으로 同業을 經營햇다하며 그外에도 肥料를 元價로 放賣하야 中間及 暴利商의 跋扈를 抑制하므로 一般農民의 信望은놉다하며 氏는 일즉이 面協議員으로서 行政에勞力을햇스며 金融組合評議員으로서 金融界에 奮鬪햇다한다 氏의 前途에 對한 期待는 實로만타 (寫眞은 趙遠氏)

社交의殿堂 漢城館 規模大로有名

裡里『漢城館』이라면 京鄕을勿論하고 各地에그名聲이 놉다 그것은同館의 主人 郭基泰氏가 料理業界의 豐富한 經驗을가지고 三十餘萬圓이라는巨額을投資하야 大規模의設備로經營하기때문이다 料理의新鮮珍味며 一流名妓三十餘名의歌舞는同館의자랑이니 그들은無非名唱名舞로 斷然 好評을바드며 特히藝術的神秘를 [illegible] 어데 南鮮一帶는勿論 京畿以北에서도 三千里나하면 漢城館을求景하고저來客이 雲集하야 年中不景氣를不知하는 大興味를 이룬다는데 一種의 社交場이 되엿다

南朝鮮花巷 日出館 一流名技廿餘名

湖南交通의 中心地요 全羅道의關門인裡里에 고달푼나그내의 慰安處로自他가共認하는곳이 잇스니 有名한 日出町에잇는日出舘이다 同館은各方面의好評을바더왓거니와 一流名妓二十餘名과完備한 諸般施設로 紅燈世界의人氣를總集中하는바 裡里는 勿論各地에서도 遊興客이 殺到한다 同館主 郭泰吉氏는 全南順天郡西面大東鑛業所도經營하야 拔群의成績을내인다고한다 (寫眞은 日出舘과 郭泰吉氏)

山海珍味의 山海館

裡里에 [illegible] 來客의 [illegible] 이잇스니 곳 唯一한料理店 山海館이다 同館은 昭和八年九月以來 一般官民의好評을바더왓거니와 同館主鄭雲鶴氏는 多年의經驗을가지고 裡里를爲하야 貢獻的經營하므로 來客은山珍海味와名妓外에도한층 愉快味를가진다하야 人氣를集中하고잇다 요사이는 大衆本位의 一圓상이나나 每日滿員盛이룬다한다 (寫眞은山海館의妓歌舞光景)

山海珍味의
山海館
顧客本位로一貫

謹告

紹介版發刊함에 際하야 諸位의物質的援助와精神的指導를하야주심에對해서는 絶大의謝意를 表하는바입니다 微力이나마 熱誠을다햇사오나 發刊豫定의時日이遷延되엿슬뿐아니라 本郡固有의深遠한歷史的事實과 壯觀한産業을具體的으로 敍述하지못하고于先第一號를 發刊하지안으면아니되는것은 諸般의 困難을克服하기 難한事情으로因함이니 玆에 거듭遺憾의意를 謝하는 同時에 第二號에는 所期의目的을完成하고저하오니 讀者諸賢은倍舊의聲援과 鞭撻을 주시압기를 敬望하는바입니다

裡里支局長 金昌淳 白

祝 益山地方躍進號發行

裡里邑議員 李秉錫
五山面協議員 金昌順
浪山面協議員 張基星
金馬面職員一同
黃登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王宮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裡里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金馬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春浦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裡里銅山町 白南純
裡里京町 活文堂 主 蔡奎煥
參禮驛前 黃斗賢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全北支部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全北支部長 馬場五郎
五山面木川里 金鐵斗
黃登驛前 金南植
參禮穀物組合
參禮驛前 光波寫眞館 主 金用喆
五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春浦面 職員一同
裡里郵便局
八峰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咸悅驛前 黃化順
裡里 松村松一
金馬郵便所長
北一面啓明學院學校 金輸奎
黃登 池田十次郎
益山郡農會

近代名僧小列傳 ⑪

湖岩

義僧靈圭

休靜의 高弟에 靈圭라는 義僧이 잇스니 그는 壬辰八月에 僧兵의 將으로 錦山에서 重峯과 한가지로 殉節하엿다.

靈圭는 그 姓이 朴氏이니 密陽朴氏이오 公州板峙人이다. 일즉 鷄龍山에 드러가 削髮爲僧하야 西山大師(休靜)의 門徒가 되엇스며 仍하야 公州 靑蓮庵에 常住하엿다. 그는 爲人이 壯健함을 더러 또 神力이 잇서서 매양 禪杖을 가지고 武技를 演하더니 兵亂이 일어나매 靈圭는 自願하야 僧軍을 거느리고서 淸州에서 義戰 또 善守하엿다. 이때 趙憲이 錦山을 進擊하려하니 靈圭ㅣ 趙에게 諫하엿스나 趙이 듯지안코 進擊하거늘 靈圭ㅣ 이것을보고 「不可使趙公獨死」라하고 한가지로 進戰하야 趙憲이 敗死하매 사람이잇서 靈圭에게 잠간 避함을 勸하대 靈圭ㅣ 叱責하야갈오대 죽으면죽지 義不可獨生이라하고 마침내 戰死하고 말앗다.

處英과 海眼

處英과 海眼도 역시 靈圭에 내리지 안는 軍功을 세웟섯다. 最初에 惟政이 嶺東에서 起하고 靈圭가 湖西에서 起할때 處英은 湖南에서 起하고 海眼은 晉州에서 起하니 이들은 모두 休靜의 高弟이다.

그中에 가장 超出하기는 惟政(泗溟)이엇스나 그다음에 有名하기는 錦山에서 殉節한 義僧靈圭이엇스며 또 그다음에 有名하기는 아마 處英일것이다. 靈圭가 靈圭된것이 錦山一擧에 잇섯다면 處英이 處英된것은 幸州一擧에 잇섯다하겟다. 處英이 僧軍一千을 거느리고 그 老師休靜을 따라 平壤에 參戰한以來 그는 權元帥의 指揮下에 屬하야 幸州山城의 西北面을 守備하니 이곳은 가장 要險하야 防禦하기 困難함에 不拘하고 處英의 僧軍은 善戰善守하엿스므로 能히 勝利를 어덧스니 幸州勝捷도 그 內容을 따저보면 이 僧軍의 숨은 힘이 적지아니하다.

그러나 僧軍은 흔히 實戰보다도 營役에 當하얏스니 山城의 築造와 또는 軍需의 運搬을 하엿는데 義僧가튼 惟政도 休靜의 高弟의 一人으로 黃海道 巡營에서 그任務를 行하엿다. 이잇서서 僧軍이 되어 곤히업시 三軍의 軍糧을 건진것은 무엇보다도 크다 하려니와 僧軍이 또 休暇만 잇스면 弓箭을 製造하며 火藥을 貯藏하는 等 남모르는 애를 무척 썻다.

休靜의 門徒에 惟政을 비롯하야 이처럼 義僧이 輩出하엿슴은 이로부터 朝廷과 社會에 잇서서 僧侶의 待遇가 퍽달라진것도 事實이며 佛敎가 그나마 殘喘을 保存해온것도 그네들의 힘이다.

燕岩의 思想과 藝術

그의 生誕二百週年記念 (6)

洪起文

燕岩은 潘南朴氏中에도 相當히 顯達한 집안에 타여나서 그祖父가 高官으로 잇섯슬뿐이아니라 그 當時 그 門內로 위선 三從兄 明源이 英宗의사위 錦城尉요 三從姪 宗岳이 大臣이며 또 그의 親友中에도 榮貴한이가 적지 안하서 兪彦鎬 南公轍는 나종에 모다 政丞까지 하얏거니와 그나마 正卿亞卿쯤 이로 헤이지를 못 하게 된다. 萬一燕岩으로하야금 좀더 名利를 밝히고 處世에 能하야 自家의 思想을 固執지 안코 所謂 醇正을 爲하얏든들 同等의 位階에 이르렀슬지는 모르나 文衡을 掌握하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엇슬 것이요 적어도 安義縣이나 襄陽府使로서 一生을 마치지 안핫슬 것만은 疑心업는 일이다. 正宗은 燕岩의 熱河日記로 因하야 文風이 不振한다고 南公轍을 다리노하서 燕岩에 醇正文字를 지어 바치도록 命하고 果然 그文字가 醇正키만 할진댄 南行文任을 앗기지 안켓노라고 下敎한 일도 잇섯다. 그는곳 南公轍에 對答하야 形式을 빌어서 獨化의 災民이요 文苑의 棄物이라고 自貶하고 이로부터 改心易慮하야 다시 聖世의 幸人이되지 안켓노라고 自悔하는 一篇의 글을 지어바치엇건만 究竟 南行文任의 鴻恩을 입지못하고 말앗든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잇서서는 죽엄을 免한것만이 千萬 끔직한 일이요 山郡縣邑이나마 어더 산것이 意外의 功名이다. 거기對하야는 自身도 別로不滿이 업섯스려니와 우리도 그를 爲하야 그다지 哀惜할것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唯一無二한 學問中 親友는 洪湛軒이요 그外에 가장 가까이 交遊되든 분들은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李書九가튼이들이다.

李柳朴李의四人은 四家로 竝稱되는 當代一流의 詩人으로서 그들의 詩風에 그의 影響이 絶大한 것은 다시 말할것도 업다. 일즉이 朴齊家 李書九等의 後進이 한번 燕岩에게 그平生事를 물엇더니 그의 對答이 自己집에 傳來하는 가께수리하나가 잇서서 메해를 房한구석에 그대로 노하두엇다가 어느해장마때 비가 새기에 옮겨 노려고 보즉 다썩어서 사개가제절로 흐터 낫는데 自己의 平生은 마치 그 가께수리와 흡사하노라고 하얏다. 그로서는 名門의 德이든지 親友의 힘이든지 죽엄을 免하고 分外의 벼슬을 어든에 오히려 滿足해야하고 感謝해야할 處地언만 그의 말은 어딘지모르게 落拓不遇의 慷慨한 感懷가 싸히어 잇서서 오늘의 우리로서까지 悲憤한 마음을 이르키어 준다. 그의 死後에도 그의 著作은 줄곳 不遇하야 牛溲馬渤의 文集들이 流行하야 上梓되엿슴에 不拘코 그의 謄錄이 겨우 世間에 돌아다녓슬뿐이다. 그의 孫子 珪壽가 平安監司로 잇슬때 그의 刊行을 議하다가 世間의 物議를 두리는 그兄님으로부터 拒絶을 當하고 말앗다고 한다.

燕岩의 著作을 普及시킨데 對하야는 金滄江의 功勞가 크니 그는 庚子年에 두卷짜리로 出版하고 다시 丙辰年에 中國서 여섯卷짜리로 고치어 出版하야 두번이나 刊行하얏스나 그대신 古文家의 陳腐한 眼目으로 取捨가 妥當치 못하고 또 字句의 任意改纂이 적지 안타.

虎叱 當從으로 고친 例는 오히려 小小한 것이요 文丞相祠堂記中의 孫子니야기는 自家所見에 맛지 안는다고하야 燕岩의 現夢하야 指示한것을 핑게하고 任意의 削去를 敢行한 것이다. 滄江의 두번째 出版보담 메해압서서 光文會에서도 燕岩의 熱河日記를 出版한일이잇고 年前 市內에서 다시 그全集을 出版하얏는데 거기는 原本出處의 考證도 업고 附記된 評文의 임자도 밝히지 안코 또 原本의 誤寫인지 校正의 不精인지 脫字와 誤字가 적지 안 하다. 그러나 만흔 費用을 던지어 그全集을 刊行한것은 確實히 意義잇는 事業이어니와 이왕 그러한 壯擧를 할바에는 具眼者로 그任에 當케하야 좀더 完全케하얏든이만 갓지못하다. 연암의 思想의 淵源과 밋 그交友들에 對하야도 多少의 이야기를 하고시프나 이미 한 頁數가 차 버리엇다. 연암의 專門硏究者가 나와서 나의 疏漏한 論文을 補充하야 주고 또 나의 그릇된 論旨를 校正하야 주기바라며 이붓을 놋는다. (終)

(燕岩의生辰은二月五日이다)

鍊金術

長篇小說의 方向

五星子

우리에게는 眞正한 長篇小說이 거의업다고해도 過言이 아니다. 所謂 通俗小說家에 이르러서는 말할나위도업고 平素藝術的作品을 生産하든 作家들도 한번長篇小說에다 붓을대이게되면 그들의 短篇作品과는 아주딴판의 外道를 해서 모다 들 私生兒的作品을 나코만다.

이것은 長篇하면 으레히 新聞小說로 알아채리고 또 新聞小說하면 더퍼노코 低俗하게만 認識하는 탓인대 우리文壇의 가장 부끄러운 일일것이다. 톨스토이의 「戰爭과 平和」 유고의 「레·미제라블」 가튼 超脫級作品을 當場 期待하는것은 無理한 일일것이나 떠스토이엡스키의 「罪와 罰」의 그 本格的 態度와 精神만은 누구나 다함께 가지고 잇서야할것이다.

長篇小說은 作家들의 覇氣잇는 野心과 第一深大한 품안아래에서 되는 作品이다. 勿論 저널리즘과 讀者들을 생각하게되면 어느程度의 制約이 생길것이지나 그러타고 함부로 媚態를 보이는 孫子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長篇小說은 압흐로 어디까지든지 文學의 嫡子主義로 前進해야만 할것이다.

納涼 REPORTAGE (3)

무지개 뻬치듯 萬歲橋

定和陵숩우에갈메기날고ㅡ

白石

함마千이 넘은 벌이 묵허진곳에 東海조흔바다가 겻틀이고 新興, 長津 선선한 바람이 넘나들고……咸興은 서늘엄게 태여난 고장이다. 아카시아, 白楊木의 그늘이조코 드높은 한울에 구름이 깨끗하고 샘물이 차고맑고……咸興은 분명히 서늘엄게 태여난 고장이다.

이 서늘어운 都市에 城川江 조흔물이 흘러더욱조타. 江은 한번 마음대로 넓어보아서 北關의 마음씨가티 시원한데 山비슴물은 이江에 白雲山 울얼어 한업시벗는데 동뚝을걸으면 것는 몸이 으뜸 푸르르고 눈흘을어 처다보면 冠帽, 白雲에 힌눈이 皚皚하야 몸속에 찬기가 옷삭하는것은 咸興사람이다. 江이넓으니 다리가 길어 萬歲橋인데 欄干에기대이면 咸興벌 변두리가 감감 쇠리하야 太古가티 아득하고 長津山골 날여맥이 바람이 江물소리와 회이한 仙味가 구름우혜 떠구나하고 생각케하는데 낫보다도 낫이 기울고 개밥바래기 별이떠서부터 모작별이 넘어가는 밤 하이얀 뭉게구름이날티고 定和陵白鷺새 날라고 新興 끝룽바람이날이는때 咸興 사람도 가티 뛰어들어 天下의 서늘어움을 엇으며 자랑우숨을웃는다. 江은 해정한 沙洲를 어루만지며 날어 가고 흐르르는 욱은江 동안 그우를 지중시중 거니는것은 咸興사람이 서울사람의 長橋舊과도 밧구지안흘것인것이다.

그러나 咸興은 江과 다리에 그치지안는다. 그淸味를 다하지 안는다. 鎭山 盤龍山의 眺望과 바람에서 엇는 冷味! Y女學校의 뒤로 西洋人 宣敎師들의 집을 지나 孔子廟의 뒷담벽을대더 이山마루로 올라다면 별서 날어날뜻한바람이 휘휘마주나밧고 눈흘흘면 新興長津의 겨겹하니 그늘진 체모가 咸州連山의 秀壯한 모습이며 東海의 맑숙하고 새듯한 歡葵가 모다 五龍六爾의 더위를 모라내이는데 이제 이山마루 어데바루 落葉松이나 赤松 그늘조흐미데 咸興燒酒滋을 기울이는淸味는 半千年古都의 心臟이아니면 알지못할것이다.

咸興의 서늘어움은 그래도 또 東海를두고는업다. 西咸興驛에서 한二十分가면 九龍里海水浴場이다. 東海의 맑은물에도 맑은물인데 十里에넘는 기나긴 모래사장이 테를 쭉 둘르고 아페는 눈갑흘 가로막는것이 업시 쭉빗가튼바다가 뱅글뱅글 도라간다. 물결이 좀 노프나 노픈대로도 시원한맛이잇고 그리멀리 엿지못하나 그런대로 또 물은 세모래가 보드러워서 모래집이 간지럽게 조코ㅡ. 어쩐지 예조뇌 한情緖가 海濱내음새가티 떠도는 이海濱에서 알찾하니 가슴을 알들것은 나뿐이 아닐터이지만 지난녀름 어느날日 정해서조타. 발뒷굼치로 물미출주시면 대합조개 명주조개 고초조개 가튼것이 집히우고 大鷄人의 어여쁜 처녀들이 해변에서 맛낫다난뒤로 나는 이九龍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조 간절해젓다.

興南, 天機里의 朝鮮窒素工場들이 가까운곳인데도 九龍은 바다에 기름이뜨지안코 떠러운 쇠배가 뜨지아니하고해서 그보다조흔 西湖津 예서멀지안으나 西湖는 제대로 항세하는닷에 咸興사람들은 가까운 이 九龍을 내것가티녁이고 단니는것이다.

納涼이면 또 다시 더업슬것이나 또納涼의風流를 咸興이모른대서는 아니다. 萬歲橋를건느는 낙시질꾼들의 멋들어진 체모를보고는 얼마하지안흔風流가 西上里의貢沼에개울에 그늘에 그개울에 드리운낙시대에 그낙시대에 달려나오는 銀빗 비눌에엇는것을 알것이다 벼푸른논가운데의 그늘을 신세지고서서 낙는 손바다가튼 눌고기 붕어 수양버들늘어진아래 자리깔고 안저낙는 개울고기 천에, 버들치, 이러해서 쳔렵이 벌여지고 서늘어움을 十里밖에두고 사는 咸興사람들은 咸興이 업다고 좀 야무지나마 토박한 사투리로 말하는줄아십니까.

(寫眞은 萬歲橋)

歐米學生의 趣味生活 (三)

朴周植 寄

또한伯林 「푼딕」 「하부르크」 其他 主要都市에 잇서서는 娛樂設備가 매우 完備되어잇기때문에 學生이 工夫하는 동안의 틈틈이 여러가지 遊戲요 또는 各各身體에 適應한 運動을 하는것은 매우조혼일이다 아침時間을 「뽀-트」에 희렷지고 午後는 「테니스」 그리고 어떤때는 저녁때 時間을 「골프」를 하는것等 各各市中 私設團體의 俱樂部其他에 時間을 申込해두면 極히 廉價의料金으로 正確하고 規律的으로 自己의 所望대로의 時間에 「코-취」의 親切한 指導를 바다 充分하게 運動을 할수잇는 것은 매우 조흔일이다 其他 「호텔」 「포-겔」 運動等이 잇서서 獨逸의 學生生活의 熱中한 공부와 鍛錬의 틈틈이 實로 靑年時代를 謳歌하는것가튼 高尙하고 純美한 施設이 設備되어잇슴으로 英國과는 아주달리 學生生活을 意義잇게 하려하고잇다

米國

米國은 新興國이고 獨立自營의 植民的意氣에 불타고잇서 經濟的으로 活躍하는 것이 만타. 「록펠러-」 가튼 大富豪가 뉴욕, 시카고, 로스안젤스等의 都市에 學生을위해서 義俠的으로 設置한 인터-내슈낼·하우스(學生寄宿舍)가튼 施設은 結構하다고도 各大學에 各各學生들을 위해서 俱樂部가 設置되어잇고 特히 運動競技等 娛樂方面에 對해서의 設備는 宏壯한것이 잇섯다 이俱樂部에 對해서 一例를 들면 시카고大學가튼것을 보드래도 女子學生들을 위해서는 「아이다-노예홀」의 堂堂한 建物이 設立되어잇다. 普通室과 娛樂室과 食堂과 談話室 運動場이 實로 完備되어잇서서 彼等은 學業의 餘暇, 모두이 「홀」에 모혀서 各各조화하는 方面으로 娛樂休養을 試하고 淸新한 意氣를가지고 다시 공부를하는 것이다.

男子學生의 레이노흘드는 三層建物인 實로 宏壯한 建築으로서 그 階上運動室과 가튼것은 靑年에 適當한모든 室內運動設備가잇고 其他浴場과 食堂과 圖書閱覽室과 娛樂室等의 設備의 完備한것은 매우 놀랍다 더구나 이러이 노흘한데 이노氏가 男子學生을 위해서, 아이다노예氏는 女子學生을 위해서 各各將來의 維持費까지 添付해서 勤學에熱中하는 學生들의 前途를위해서 寄贈한것이다 그리고各大學에서도 그러치마는 各種團體나 汽船會社는 다大學內에出張所를 設置해서 學生의 旅行과 避暑 避寒等 夏季休暇에 對해서便宜를 圖하고 또 시카고大學가튼데는 三千餘人의 職員과 二名의 學生職業紹介係가 學生의 就職其他 實際社會의 活動에 對한 紹介를 努力하고잇다

大學以外에서는 「컬럼비아」 大學附屬 女學校와 또 有名한 맛킨레-, 하이스쿨과 其他各方面의 中等校 初等學校에 對해서 그들의 生活을 보면 부러울만큼 질겁고 愉快한 것이다 컬럼비아大學附屬의 호-레스만, 스쿨을 參觀하면 그 敎室內에서는 그들은 조혀 自己네 집과 가튼 氣分으로 살고잇다 가령 三年級의 敎室을 보면 敎室의 入口에 生徒들이 하고시퍼하는것으로서 生徒의 希望이 쓰여잇다. 함께 재미나게 놀고십다 훌신 여러가지 책을 읽어보고십다

新刊紹介

▲月刊對談 八月號(內容) 宮中秘話=宣苑의 長恨. 血淚哀話=貞女紅淚夢. 紅戀怪=邦嫁烈女. 等其他 滑稽笑談=將相豈有種乎. 等其他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月刊對談社 振替京城二六三五二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新文壇 八月號 八周年記念特大號 發行所 鳥取市西町脇若館前新文壇社 振替大阪二四〇七九番 定價十五錢 送料一錢

▲롱천검 八月號 發行所 京城府堅志町八〇 롱천검社 振替京城二七〇〇番 定價十五錢

▲朝鮮山林會報 七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農林局內 朝鮮山林會 振替京城九六八二番 定價三十錢送料二錢

主人업는 싸인

남시!·캬톨이가다가 펜인듯한 실신은 티아시드니-가아닙니가 「未安합니다마는 싸인을 하나주십시요」하고 종이를 내밀엇다 캬톨은 靑年의얼골을치어다보면서 自己를 시드니-로 아라보는 靑年이 몹시원망스러웟다. 그리하야 싸인은 「메리! 픽포-드」라고날려쓰고는 달아나버리엇다.

라디오

三十一日(土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 두篇 一、귀동이의飛行機 二、착한마음 京城두루미會

◇同六時三〇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夏期의 讀物에 對하야』 李克魯

◇同八時 農村講座 (二) 稻의害虫과防除法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金雄玹 一、빗나는봄 李仁洙作詞 二、傷痕의시내 朴英鎬作詞 三、못가는故鄕 四、에헤라靑春 金 五、곳노래 李仁洙作詞

◇同八時五〇分 時調 伴奏 DK管絃團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李承煥 崔壽成

◇同九時〇五分 野談『虫二樓』 庾秋岡

第二放送

◇午後六時(鮮) 天然紀念物 ◇同六時三〇分(大) 童話劇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一五(東)·歌舞曲 ◇同八時(東)物眞似 ◇同八時三五分(東) 落語 ◇同八時五五分(大) 浪花節

一日(日曜)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一、君ケ代 二、講演 文部大臣 安井英二

◇同〇時五〇分 映畫이야기 "라모나" 徐相弼

◇同一時二〇分(平) 第二回京平對抗水上競技大會實況—平壤公設그라운드、풀로부터中繼—

◇(京城)—明治町二丁目相撲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三〇分 童謠와하-모니카 一、童謠 1、齊唱 저녁노을 2、獨唱 우리아가 (金貞淑) 3、齊唱 (가)보름달(나)참새의춤 (다)떨기 二、하-모니카 1、四重奏 旅愁…金大珍編曲 2、二重奏 조스란의자장가…곳다드作曲 3、四重奏 도라오라쏘렌토로…쿠르티스作曲 M、K、M、硏音會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勤勞生活에對하야』 中樞院參議 韓圭復

◇同八時 一、늴늬 二、압山打鈴 三、뒤山打鈴 四、긴난봉가 五、가진난봉가 金蘭香 金蘭紅

◇同八時二五分 토-키씨나리오 "뻐꾹이울때" 安鍾和作— (다이아로그順) 安夕影 李圭煥 金幽影 朴基宋 徐光濟 金錫和 安蓮寶 金石燕 姜寶淑 車三省 孟 映畫劇硏究會

◇同九時五分 歌詞 一、將進酒 二、漁夫詞 (에헤드) 文明仙 徐山玉 金永根 金一字 大笒 杖鼓

◇同一〇時 南道民謠 一、보리타작소리 二、방아打鈴 三、모심는소리 四、珍島아리랑 五、캐지나칭칭나네 鄭柳色 吳翡翠 曹弄仙 朴鐘基 大笒

第二放送

◇午後〇時五〇分(東) 라디오體操

◇同八時二〇分(東)라디오드라마

◇同八時五〇分(東)合唱及吹奏樂

二日(月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

◇同一一時一五分 復習時間 「외무룸쿠」 國語(一) 咸 業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令 三、孝春歌 四、흥打鈴 五、아리랑 六、노들江邊 七、密陽아리랑 笑琴 池龍九 細笛 李炳祐 伽倻 崔壽成

◇同六時三〇分 童話劇『여우의재채기』 百合어린이會 指導 朴義燮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라디오大學 經濟篇 經濟의意義 徐椿

◇同八時 時局講座 金性洙

◇同八時三〇分 레코-드 音樂 一、피아노獨奏…(프리-드만) 軍隊行進曲 作品五一第一番…슈-버-트作曲 二、첼로獨奏 (마레살)라스트、로-스、오브서멈…무-스어作曲

◇同八時四〇分(東)맨돌린 合奏 一、뻬레치아 가르가-노作曲 二、오날의기쁨 三、메누엣트 四、여름의組曲 武井守成作曲 (가)저녁비오는거리 (나)風磬 (다)바다에게 (라)烟花 求婚하는兒孩들 指揮 武井守成 오르케스트라심포니카、타케이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江山 二、唱劇調 赤壁歌 林小香 丁元燮 鼓手

第二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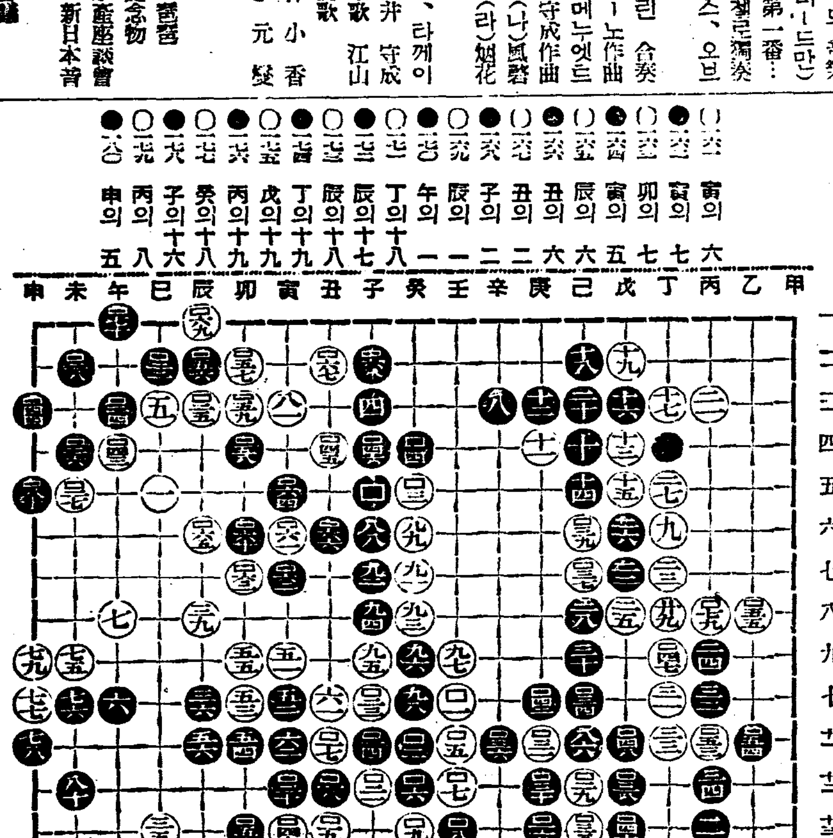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東) 音曲 ◇同六時(小) 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大)水產座談會 ◇同七時三〇分(東) 新日本音樂 ◇同八時(東) 敎育會議 ◇同八時三〇分(靜) 水丁夜 ◇同八時四〇分(東)만돌린合奏 ◇同九時(東) 叢話

本社主催 圍棋對局譜 (11)

白 廣瀨仲子

黑二點置 尹昊鉉

○寅의六 ●寅의七 ○卯의七 ●寅의五 ○辰의六 ●丑의六 ○丑의六 ●子의二 ○辰의二 ●午의一 ○丁의一 ●丁의十八 ○辰의十七 ●丁의十八 ○戊의十九 ●丙의十九 ○癸의十八 ●子의十六 ○丙의八 ●申의五



觀戰記

白辰의一 黑午의一은 다 神奇치못하다 黑이不應하드래도 아무관계가업스므로 許多한 二三瑣事時代에 不注意로 看做되고 黑이 乙의十不應하고 申의五로 除한은 利害를 關係한인가 二二端差異는잇슬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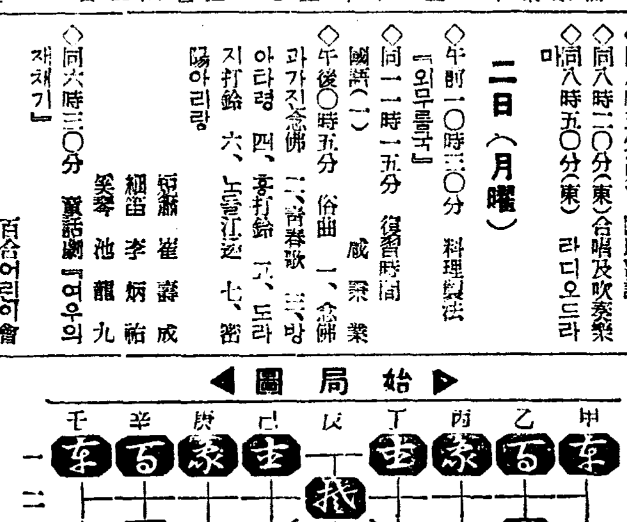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一)

漢先手 李在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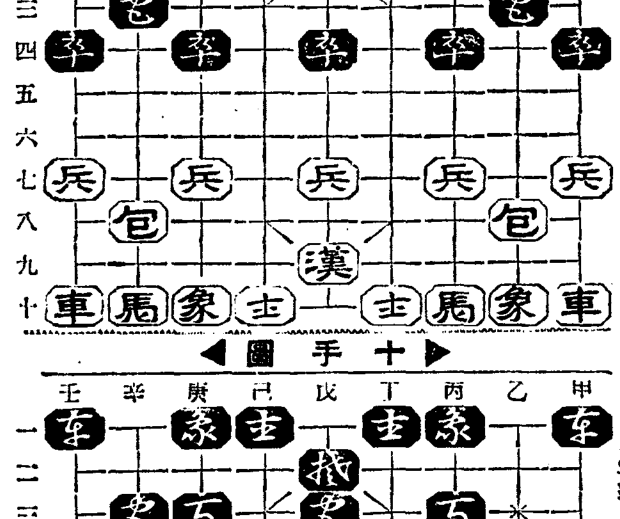
楚 許鏞

甲七兵—乙七 壬一車—壬二
乙三包—丙三 辛十馬—庚八
丙十馬—丁八 戊十包—丁十
乙十象—丁七 辛八包—戊八

◀始局圖▶



◀十手圖▶



紡織工場女工

고혼비단골너서 시집갈채림

비단을짜면서도헙벗는八字 한낫의꿈은빗갈만곱다

사람의 꿈이라는것은 料와 地位에 對한 欲望에서 꾸며지는것이다 집과 밥과옷에對하야 平素에 늘생각한바가 나타날것이다

그가운데도 女子는 꿈이더욱만코 나히어려서는 더한층이다 한창꿈이만흘시절의 처녀들이 갑비싼비단을 만지고잇스면 오죽이나 하랴. 永登浦東洋紡績工場의 처녀들의 한낫의꿈을 살피려 차저갓다

守衛氏의 嚴重한 監視를거처서 事務室에서 主任이라사람에게 許可를어덧나 맛침工場은 정심時間이기에 그들의 노는時間을 타서 나히열여덜이 되어보이는 처녀職工에게 말을건낫다.

「당신고향은 어데입니가」

「황해도 長淵입니다」

그의말소리는 씩씩하엿스나얼골은 조금부드러워하엿다

「날마다 이러케 조흔 비단을 짜내면서 입어보구시픈생각이 나지안습니가」

「입고십기야 하지마는 어데케입을수가잇습니가 이것은 아조내몸에는 걸리지안흘것이러니하고 이저버립니다」

그는한편으로 대답을하면서도 늘무엇을생각하고 잇섯다.

「부모는게십니까」

「모다시골잇고 저는 기숙사에 잇습니다 부모와 동생들은 비단은 그만두고라도 헌옷을 입지못하고 잇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몹시안타가웁습니다。」

「여기서 짜내는비단이 모두 당신의것이라면하고 생각은 업습니가」

「그래요。그런것은 생각하여본일이 업습니다 그런데 비단을 만지다가 저기서한 열마만 나를주면 하고 생각할때는 잇습니다」

「엄마를 주면무엇을하겟서요」

「어머니 치마저고리 한벌과동생들의 옷을시어 주겟습니다 아버지는 옥양목 바지저고리에두루마기를 지워드리구 시퍼요」

「당신 시집갈때 채림채림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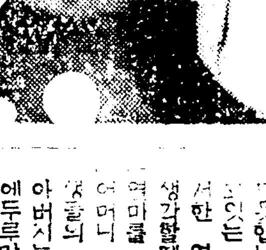
그는 얼골을붉히엿다 記者도 어지간이 닥한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내엿고나하고 後悔하엿스나 대답이 몹시 궁금하엿다.

「시집은 어느때갈지도 모르는주제에 채림채림이 무엇이예요 그저빗갈고흔 비단을마음더로 골너서 엷별만 해가지고 갓스면 조켓서요 신랑의 옷감은 비단보다 모직이 조희요 사나히가 비단옷을감고단이는것은 뵈기실혀요」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어본적은업습니가」

「웨엽서요 하로 꿈을 꾸는데 어머님이 동생들을다리고 面會를왓서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곳까지왓는데 비단옷감이라도 가저다주어야겟다고 애를쓰고잇스라니 회사主任이 그날은 엇전지 모손 비단인지아조빗갈고흔것으로 꿀너서척척 끈허수겟지요 그것을어더가지고 나가랴할때 또!가룰어서깨니 어칭입니다 그뒤에 고향서편지가왓는데 어머님이 아퍼누엇다고 그랫것지요」

工場아씨들은 정말마음새가 곱고말도잘해주엇다 點心時間이끗나고 일을시작한다는 뚜!뚜! 가울자 그는 工場안으로 사라저버리엿다.



中部版

炎熱紅塵의避難所 深夜漢江風紀紊亂

鷺鷥의떼와賭博團까지橫行

龍山署에서徹夜嚴重團束

【京南】겨울동안의스키트시절을 지난후 꼿피는봄으로부터 단풍지는가을까지 한강은 칠십만경성부민의 들도업는 노리터로밤과낫의 구별이업시 강언덕을물속과 잔잔히흐르는 물우는 청춘남녀들의 음탕한우슴소리가끄칠사이가업서 풍기는 날로문난되여가고 잇는대 요즈음엔 또한 밤새로 두시경이면 시내에서 택씨로 원앙의짝을지어와서는 목선을 각기강물우에 띄워노코 날이밝도록 청춘의향락을마음껏 누리는 연파(軟派)도만타하겟다 그뿐아니라 경찰의눈을피하야 배를 중류에 띄워노코 대대적으로 도박을하는 강파(强派)의 부정행위도 날로늘어가고잇서 이를 탐지한 소할용산서에서는 요즈음 밤을새우다십히하며 한강을 엄중경계중이라한다

西井里에서도 國防獻金遝至

【西井里】경부선 서정리에서도 국방헌금이잇섯는데 그씨명과금액은 다음과갓다

▲卅圓 李容孫 南康熙 ▲廿圓 尹鍾敏 元濟東 野口秀吉 遠成九 元濟昇 村田實 ▲十五圓 朴元勳 金鍾喆 崔炳和 ▲十圓 元濟烈 北住眞雄 嚴朴昊 李鍌來 李石鍾 遠濟九 柳遠協 車公熏 李圭敦 洪學祚 朴圭根 山崎源治郎 ▲五圓 遠鍾九 車頭基 李允鍾 朴英和 李重世 金廷植 李承達 崔昌在 播榮植 鳥越太郎 上谷龜太郎 ▲四圓 元哲義 ▲三圓 柳炳烈 朴鍾甲 南昇熙 李承鍾 三宮金治 黃地覺太郎 慶尙浩 遠駿九 李星鍾 崔仁和 孔慶雨 崔基中 ▲二圓 韓萬敎 沈鍾萬 朴鳳義 嚴華燮 崔南淳 洪在德 元之鍋 金敬奉 李鍾禹 崔承和 元濟爽 崔中鉉 車相朔 李承福 ▲一圓五十錢 劉有鳳 ▲一圓 李康勳 李東勳 田江業 遠東先 安康哲

三百圓을獻納 平澤李成烈氏

【平澤】금번시국의 중대함을통감하고 평택시내 리성렬(李成烈)씨는 지난칠월삼십일 진위군청에 출두하야 김군수(金郡守)를 맛나보고 일금삼백원을 국방헌금으로 내노아서 김군수는 그미거에 감격하야 곳 조선군사령부에 애국부로 헌납수속을 하얏다

漢江上에새名所

中之島公園九月에完成

第一鐵橋와第二鐵橋사이에

【京南】홍진만장의 도시생활에서 조고마한 안식장소에 굼주린경성부민들에게 마음놋코쉬고즐거할만한 새명소가 생겻다이는동양제일을 자랑하는 한강제일철교와 제이철교 사이에잇는 중지도(中之島)공원으로 경성부에서 새로운 고안으로써 타원형 모-터식에다가 동경은좌(銀座)를 연상식힐만한 고흔수양버들을심고 화강석인 돌로써갓을둘에 새로운단장을 식혀노아 안식처에 굼주린경성 부민들을부르고잇스며 이에완전한 설비는오는구월이면 끗나겟다고한다

高射機關銃獻納

楊州佳陸里 姜振九氏

【楊州】양주군시둔면 가릉리(楊州郡柴屯面佳陵里) 강진구씨(姜振九)는 지난 삼십일 양주경찰서장을방문하고 현금이천사십칠원의 거액으로 고사기관총(高射機關銃) 한대를 구입하야 국방(國防)에써달라고하얏슴으로동서에서는 그의열성에 감격하야곳헌납수속을 밟엇다한다

高陽서도獻金 知道面과元堂面

【陽谷】고양군지도면(高陽郡知道面)에서는 동군원당면(同郡元堂面)과 련합하여 지난이십칠일양면유지다수가 지도면사무소회의실(知道面事務所會議室)에모히여 시국강연을개최하엿든바 유지들은 즉석에서 헌금육자원하여 지도면측삼백원 원당면측이백원 합계오백원을 돌파하엿다는데 그자리에 출석치못한분의 헌금도 답지할모양으로 오는팔월오일까지 수합하여가지고지도면장 조종호(趙宗鎬)씨에게의뢰하여 헌납수속을 하기로결정하엿다

忠州郡廳員도獻金

【淸州】충주군수 전석영(全錫永)씨외 직원일동은 국방헌금으로 사십오원을 당지경찰서에지

軍事後援聯盟 忠北서도發團式

【淸州】충북도당국에서는 지난이십팔일 도지사실에서 청주읍장등 관게자를 초청하야 충북군사후원회연맹창립에 대하야타합을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지난삼십일 오전아홉시부터 청주신사에서 관민다수 참집하여발단식을 성대히거행하엿다

埋立地에서 少年을轢殺 仁川署眞相調査

【仁川】약진도상에잇는 인천은 남북해안의매립이왕성하야 구역이연장되는바가티 공사가잡답하고잇는만큼 여에대한 희생도 적지안타 지난이십구일오후오시 화수정(花水町) 이백구십팔번지 송정용(宋貞用)(三七) 최거복(崔巨福)양명이 만석정매립공사장에서 부근에서 놀고잇는 김주영(金周

빗갑고집사노니 안해는同居拒絶

本夫는仁川署에說諭願提出

못미들손女子의마음

【仁川】백년해로를 선언해 맹서한 귀여운 안해를 원수의 가난으로 헐시 빌거한것이 안해의 변심을 일으키게하엿다는 세상의 한정녀의 일례가잇다 천안군 리정면 장대리(天安郡笠場面長大里) 채석록(蔡錫祿)은 약칠년전에 안해 리씨(李氏)(三二)를마저 다곡한가정을 일우워와스나 원수의 가난으로 부채만 어 놉게되야 부부간에 의론을 한후 오면간의 구든 약속을하고 남편은 전기장소에서 안해는 부내금곡정(金谷町)함모(咸某)의집에 안잠자기로 피차에상사의 단장을만족이어기며 직업에 충실하야 맛참내 채씨는부채를변재하고 얼간두옥까지 장만하고 안해를다시마지 하랴고 하엿스나 무정한녀자의마음여라 청석가려 데여든안해는 도리혀의유혹을바라 어린자식만 돌러보내고 엄채귀가치아니한다하야 열채서에 울불겨운 서류원을념편에 제출하얏다한다

어름一千八百噸

暴炎下의京城府民들 每日平均어름消費量

【京南】연일지옥(炎熱地獄)을방불케하는 작금의살인적 혹서로인하야 수은주는 더위에 꼿칠줄을 모르고잇는이때 더위에 쪼들니는 칠십만경성부민들은 아츰부터 저녁까지 찻는니어름뿐이다 그러면 하로동안에 어름을대체 부민들은 얼마나소비식히고잇나 놀래지말라 조선어름회사(朝鮮氷會社)에서조사해보건대 이십일부터 금일까지 매일평균 소비량이 일천팔백돈가량이고 지난이십구일에는 일천구백사돈이란 엄청나는 수자를나타내이고잇다

업는술팔라고 酒母에게暴行

【陽谷】고양군 원당면 주교리구일(高陽郡元堂面舟橋里)에서 술장사하는 진대권(陳大權)과 그동생 진옥련(陳玉蓮)(三六)은 현래선(玄來善)(三二)에게무수난타를 당하여 고소를 제기하엿다 경성으로 올러갓다는대그 내용을 들은한즉 지난칠월이십구일 전기가해자현래선이가 전기 음식점에와서 술을 차즘으로 술이업스니 바쁘가지고 오마고 대답업는 요사이 바뻐온 나간후 가해자 현래선은 웬술이업느냐고 야료를하면서 대문을 부심으로 형의집에 단이러온 전기 옥련이가 말을하엿든바 현래선은 욕설을하며 함부로 란타하든중 그형 진대련이가 돌어오자 도망대로 곤봉기라로써 무수구타하엿다한다

六年守節도歸虛 變節한靑春寡婦

不義의씨腹中兒를刺殺!

判事도同情的判決

【仁川】삼남매를거느리고 류년간이나 공규를직히여오다가 여름저녁달밤근압해 벗고자는남자를보고 변심한그가 맛참내불의의씨를 포태하야 뱃속에잇는채로태아를죽이여 첨단적라태법을사용하야 사산한영아시를 저수지에(貯水池)에 바리엿다는 청춘과수의 눈물겨운고애로 법정에서 참회의눈물을흘리며 일년간외체형과 삼년간집행유예를 바덧다는사실이잇다 김포군고촌면신곡리(金浦郡高村面新谷里)조의남(趙義男)(三八)은 지금으로부터 팔년전에 남편김진현(金振鉉)을사별한후 륙년간이라는 긴세월을 아비업는 삼남매를다리고 눈물로공규를직히여오다가 여름세때인 작년음력유월십오일 달밝은저녁에 죽은남편의 삼종제되는 진형(鎭亨)(三〇)의 집에 놀러갓든바 의외에도 그의부부는정답게누어자는 그야말로 수절과부로서는 보지못할장면을보게되야 맛참내류년간이나 공규를직히여오든 구든결심은 하로밤의장면으로 변하게되야 그후부터 진형과세상의 이목을피하야 불의관계를매저왓든것이 급기야에 포태까지 하게된것이다 아 양심에마비된그일망정 세상의이목이 무서워 정부의친모되는 리구동(李求東)(六〇)에게 이를 의론하게되야 여러가지 라태의약을썻스나 효과를엇지못하고 지난사월십구일로부터 여삼일간 음부(陰部)로 낫저(箸)를 늣어 복중아를살해사산한것이라한다

遊廓이極度閑散

時局反映인지節候關係인지

人影이稀少한彌生町

【京南】황색감찰(黃色鑑札)이부튼 인생항로(人生航路)의 저주자 유곽(遊廓)에 나타난 북지사변(北支事變)의수자——못사나희들상대로 마지하는 부내미생정(彌生町)유곽은 지난칠월부터일북지사변돌발한이후 화항(花巷)을차저드는손님이 급격히 감소하야저서 한산하기 짝이업는데날이갈사록 더욱더쓸쓸만해가므로 이곳대좌업조합측은 극히불안에 빠저잇다하며 점과가티마음대로 손님을 못마지하는창기들의 한숨은 더한층깁허가고잇다한다

二階堂署長勇退 後任은新海公氏 永登浦署長更迭

【永登浦】금번의 이동에의하야 영등포 경찰서장이게당승(二階堂昇)씨는 도경시(道警視)로승진후가정의 형편으로 용퇴하야 실업계로 드러가게되엿는데 동서장은 소화구년오월안성경찰서에서 영전된이래 만삼년이개월동안 공장지대의 발전상민중경찰의 실적을 나타내인도내의명서장으로 그용퇴를 애석히녁인다하며 그후임에는 경성소방서장(京城消防署長)으로 잇든신해공(新海公)경부가 발전되여삼십일일부임하엿는데 신해공씨는 십여년전에 영등포관내에 재직하엿든일이잇서 관정을 잘알고 도소방서장으로잇스면서 영등포의소방시설확충을위하야 노력하든 원만한인격자임으로 크게기대된다고한다

時局巡回講演 始興郡守等出發

【永登浦】수일전에 시흥군농촌진흥위원회(始興郡農村振興委員會)에서 결정된 각면순회시국강연반은 각각자기와가티 담당구역에 출장하야 시국인식을 철저케하고저강연회를 개최하게되여 그제일착으로 능천시흥군수(能川始興郡守)와 도회의원김민식(金敏植)량씨는 군속 최종선(崔鍾璿)씨와 동도군신동면(新東面)과 과천면(果川面)에 향하야 삼십일일출발하엿다

▲第一班 八月一日 果川公普校 八月二日 新東公普校講師能川郡守 金敏植

▲第二班 八月五日始興普校 八月六日西面公普校 講師 森山主任外一名

▲第三班 八月六日 軍浦公普校 八月七日 安養公普校 講師 松本委員 沖井委員 松田校長

▲第四班 八月八日 君子公普校 八月九日安山公普校 講師 關口主任 小野理事

盛況을豫期하는 軟式野球大會

仁川體育會主催로

【仁川】인천체육회주최와 본보인천지국후원하에 전인천연식야구대회를 도산구장(桃山球場)에서 오는팔일과십오일양일간개최키로하얏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참가팀이답지하야 발서약오단체를초과하고잇다는데 오는사일로써 신청기일이 박두하얏다는바 지원단체는 속히신청하기를바란다고한다

全義서도國防獻金

【全義】금번북지사변이 돌발하자 시국의 중대성에 비치여열밤의 국방헌금열이 날로 고조되여오는바 충남전의에서도 단체혹은 개인으로 속속그신청이 경찰관전의주재소도 드며와 지난삼십일까지 헌금한씨명과 금액은 다음과갓다고한다

百圓 全義邑內里姜龜周 百圓 同上 秋谷武雄 五十圓同 崔元宗三十圓同 金永五 三十圓 全義邑內里 李種甲二十圓 同上 李漢永 十圓同上 鄭胤謨 二十二圓八十八錢 全義面光谷里砂防工場人夫一同

地方人事

▲吉田豊新氏(開城郵便局長)新任人事次 本報開城支局來訪

▲車相悅氏(龍振郡庶務主任)利川郡榮轉人事次本報平澤支局來訪

▲長井又三氏(振威郡庶務主任)新任人事次本報平澤支局來訪

▲西島明氏(楊州郡産業技手)新任人事次 本報楊州支局來訪

長篇小說 花冠【四】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여름밤의꿈(四)

어머니의 손은 마치 장우에서 좋은 장갑이나 처럼 쏴—놀하다. 힘줄과 뼈가 도톨도톨 만저지기도 한다.

『나를 기르신손! 어제 나를노호시려는 손! 나는 어손을떠나 어떤 손으로 갈것인가? 이 쏴—놀한 채온 약한 손을 떠나?』

동옥은 좀더 뜨거운 손이그리워짐은 속일수 업는 감정이다. 동옥은 베개를 도두어 비어 본다.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 여성에 합해야만 되는가? 둘이 한몸이 된다 하엿스니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는 완전한 한몸, 완전한 한개의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오—라 어떤 철학자의말이 생각난다. 사람은 본래 하나이더랫스나 이세상에 나올때에 두쪽으로 갈라저 나왓다는 그한쪽은 여자가되고 다른한쪽은 남자가 되엿다는, 그래 결혼이란 갈라젓던 자기의 쪽을찻는것이라 한말이. 정히는 벌써 그쪽을 차즌셈이다. 그럼 나는 아직 반쪽대로인가?』

동옥은 정말 자기의몸이 반은 어디로 날라간것처럼 갑작이 허전해진다. 베개를 도두는 대신, 이번에는 자리를일어나 보앗다. 어머니는 그저쿨—쿨 주무실뿐, 마침 우루루하고 산협을 흔들며 밤차가 지나간다. 빽—하는 기적이 나더니 우루루소리까지 굴속으로사라지는듯, 다시 고요해진다. 동옥은 방안이 가깝해젓다. 일어나 쪽지만 들면 컴컴한 천정에는 전등이 켜질것이다. 그러나 불밝은 천정보다는 태양은 업더라도 하늘이 보고십다. 그러자 누구인지 뒷산마루에서짐생의 소리처럼 아무의미도업는

어—

어—

소리를 질은다. 아직 기픈밤은 아니니까 산보로 올라갓다가 심심해서 한번 질러보는소리리라. 그러나 동옥의 귀에는 그 단순한 음향이, 인간은 고독하다고 웨치는 소리가탓다. 반쪽의 언간이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떼떼저 나간 자기의 반쪽을 부르는 군호와도 가티 들리엇다.

동옥은 자리옷 우에 엷은세라만을 걸치고 방문을 열엇다. 낫선 여관집 뒤뜰안, 장독대에서는, 가을벌레도 우리라 는듯이 여러 버레들이 은방울가튼 소리를 흔든다. 우중충한 산그림자, 허리를 굽히고 처다보니까야 별바다 보힌다. 아침 꼿밧처럼 별들은 이슬끼가 호른다.

『오! 별도 밝기도하다!』

동옥은 산뜻하는 어머니의 고무신을 끄을고 장독대아프로나려갓다.

『사람들도 별들과 가티 비치난다면 하늘에서 땅을 나려다 봐도 저러케 아롱다울테지? 별 가티 빗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업슬까?』

동옥은 장독대 우에 올라서서 길다라니 부러 잇는 여객실들을 나려다본다. 모두 사람들이 들어잇는 방들인데 모두 머다지들은 캄캄할뿐이다.

『모두 악한 사람들만이여서그러친 안홀터인데?』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분별이업시 어둠속에서는함께 무처버리는것이 동옥은 『슬픈 일이고나!』 하엿다.

『사람은 별처럼 광채가 업기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더 외로워 가보다』 도 하엿다.

『나의 반쪽은 지금 어디잇나? 이세상 허구 만흔사람중에 어느것이 나의쪽인것을 어떠케 차자내어나? 성경이나 철학자의 말에 하나이 두쪽으로 낫다, 둘이합해서 하나이 된다, 그런말만 잇지 제쪽과 제쪽거리는 무슨 표가 잇다든지, 어떠케해야 제쪽끼리 만날수잇다는 말은 업지안흔가? 사람의 비극, 더욱 연애나결혼의 비극은 어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제쪽이아닌 쪽과 마저서 홈이 업는 한평어리가 될수는 결코업슬것이니까……』

려는 별을 보히는 별, 소리만 들리는 [illegible] 느끼면서 장독대를 나려 향을 더욱 호젓 [illegible] 기념어본다.

小型國産機の 最高權威 特許アクロ式 クボタ ディーゼル機關 株式會社久保田鐵工所製 (カタログ進呈) 合名會社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2)八八二·四七八四

恩給 五年分以上特別立替償引受更又立替 京城林町八八(孝經橋南側賀屋後) 朴商會

清血排毒特効藥 海草精 定價(一個月分)三圓九十錢 京城鐘路六丁目二六七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朝報案內

住宅 小口住宅資金特別低利提供 火災保險特別取扱 京城府茶屋町七六 益合名會社 電話本局五·〇五六番 五·八六〇番

外務社員招聘 經驗有無不問하고努力奮鬪의士를求함 二十五歲以上의有給外務社員을招聘 鮮內各地駐在可 希望者는履歷書를보내면面會日을通知함 京城府長谷川町一一二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電話本局二·三三四番

謹啓

今般同業申合せ自今毎月二回(第一及び第三月曜日)を定休日と致し一齊に休業の事と相成候間此段謹告申上候

但し平田百貨店は當分の間從前通り毎月一回(第二月曜日)に休業仕候

八月の定休日 二日(第一月曜日) 十六日(第三月曜日)

平田の定休日 八日(第二月曜日)

三越 三中井 和信 丁子屋 平田百貨店

001541

이상하리만큼感觸이조은

ランランポマード 란란포마―도

壯烈悲愴鬼神も哭く海の巨人の最期を見よ!!

R・K・O・超大作ベン・ストロフ監督 ヴイクター・マクラグレン プレストン・フオスター 主演

大氷山の爆破! 水陸兩用! 飛行艇の活躍! 暴風雨中を遭難船救助に急行する決死のボート、壯烈悲愴巨人の肺腑を衝くR・K・O・得意の海洋スペクタクル!

海の巨人

ルイス・ブラドックをKOす 全日本の人気を攫む大爆笑篇!

エノケンの ちやッきり金太 榎本健一 外PCL全スタッフ總出演

8月1日 大人 五〇錢 小人學生 三〇錢

冷房完備

若劇

慢性急性 淋疾 ネオヂリン 定價一圓·二圓·三圓·十圓 各地有名藥店에잇다

攝生法 一、淋疾에걸린사람은患部를만진손으로눈을만지지말고 一、浴場에서는비누로洗滌하고決코浴槽에들어가지말것 三、酒類를一切禁할것은勿論炭酸瓦斯의飮料도禁해야한다 四、淋病에第一効果잇는네오지린을連續服用할것이오食物은淡白하고消化잘되는流動飮料를먹어야한다

製造元 山本回生堂製藥所 京城府本町四丁目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電話本局二·一七九五·二·〇四三五 振替京城一五七 私書函京城四八九番

弊店은安心하고去來할수잇는藥品賣藥卸問屋이다

若劇 八月一日ヨリ五日間 晝夜三回 大人五〇錢 學生小人三〇錢

エノケンの 1 ちやツきり金太 11·30 3·00 6·50 ルイス·ブラドククをKOす

2 北支事變ニュース 12·45 4·15 8·05 南國太平記總集篇

3 海の巨人 1·25 4·55 8·45

(一) PCL作品榎本健一主演 (三) RKO超特作ヴイクターマクラグレン·プレストン·フオスター主演

東洋劇場 ◁七月三十一日부터▷ 療養中이든車紅女孃斷然出演! ◁待望의愛讀名作期於上演▷ 劇團靑春座全員熱演(第六週) ◁上演劇本▷ 林仙圭作 『愛怨十字路』三幕六場 사랑!원한!사랑하엿기때문에 매친원한!원망하면서도니즐수업는사랑! 이『愛怨十字路』에서主人公의生涯를그지내는이演劇의主人公의生涯를그려내는젊은劇作家林仙圭君은뭇을놋고흘으는눈물을거두기로못엿차례엿든나?못잇는니여—다가리울고올어本篇主人公의生涯를조상하는同時再生出演하는우리의『푸리마돈나』車紅女孃의將來를祝賀하자 九月山人作 『夫婦風景』一幕二場 ▲次週斷然上演▼ 李雲芳作 『靑春日記』三幕

明治座 7月31日8月1日 兩日限り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京日ニュース 11·30 3·00 7·00 土屋主稅 11·42 3·12 7·12 朝日ニュース 1·06 4·36 8·36 婚約三羽烏 1·23 4·53 8·53

滿都人士渴望의的인藝苑座 三十一日부터六十餘名團員으로 公演 이번公演에두가지特長 前無後無한大幕間 舞踊寸劇珍奇華麗 晝間一時부터夜間七時四十分定刻開演 納涼特別奉仕料金 階上 五十錢 三十錢 階下 三十錢 二十錢 劇으로斷然一千萬婦女子에눈물을자아낼 家庭悲劇 꼿은저도 울음은설어워 四幕六場 絢爛華美한最新舞臺裝置와珍奇異한大幕間萬華鏡은前에못보던바라에듸—淸雅한노래는흐르고제스와舞踊은曲線의興을도와歌舞音曲이合奏되는藝苑座에때아닌꼿이피고세가운다 總指揮……金蓮盛

優美館 貫鐵町 電光二·一九五 八月一日낫부터四日間大公開 每日晝夜三回公演 一回十二時、二回二時二十分(夜映)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下十錢 英國아리이안스社特作全發聲 日本版 監督 아—사 웃드氏 名篇 祖國을지키는者 主演 작크·파카氏 그레다·닛센 松竹大船特作 네오스파—토—커—版 監督 佐佐木啓氏 現代名篇 お美美の評判 主演 高杉早苗、大山健二 共演 川崎弘子、小林十九二 監督 마비—르세루망氏 西部活劇 正義의凱歌 主演 비리—세와三 寶天山고이氏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十七年度產金量 百三十五瓲目標
其中朝鮮七十五瓲(三倍增產)
商工省의五個年計畫

【東京】商工省에서는 金增產計畫의 積極的遂行을 期하고저일즉부터 大藏省과 有力產金業者와 協議中이든바 左와如히 產金五個年計畫의 具體案을 決定하고 이를 特別議會에提案하야 追加豫算을 要求하기로되엿다

同計畫의 內容은 昭和十七年度의 產金量을 日本內地六十瓲(昭和十二年度推定產金量二十六瓲) 朝鮮七十五瓲(昭和十二年度推定產金量二十五瓲) 合計百三十五瓲을 目標로하고 日本內地에잇서서 精鍊所五十個所 選鑛所三十個所의 新設과 增設을 獎勵하야 一般產金業者에 探鑛獎勵金을 交付하는同時에 中小產金業者에 限하야 必要한助成金을 交付하고다시 群少產金業者에 對하야는 緊急設備百臺(價格一臺一萬圓)을 無償貸與하는一方、各地鑛山監督局所屬의 專門技師로 하여금 現地指導에 當케하야 內外地를 通하야 官民이 協力하야 金의增產을圖하려는것이다

金資金(長期調整資金改稱)을 金과國債에運用

金資金特別會計法案(從來長期調整資金特別會計法案改稱)은 二十八日閣議에서 決定하얏슴으로 金準備評價法案과 共히 二十九日衆議院에 提出되엿는데 法律案要綱은 如左한것으로 同資金은 金의 買入或은現送、國債引受又는 金支出及低資融通에도 運用할수잇게되엿다 同資金은 豫算에 基하야 이것을 一般會計에移하고行케되엿다

金資金特別會計法案

一、金資金을設하고 그歲入歲出은 一般會計와區分하야 特別會計를 設함

一、金準備評價法의 規定에依하야 日銀、鮮銀、臺銀이 政府에 納付하는 金額과 日銀金買入法에 依하야 日銀이政府에 納付하는金額은 이것을本資金에 繰入함

一、本資金은 豫算이 定하는바에 依하야 資金의 增加를爲하야 必要한費途에使用할수잇슴

一、本資金은 大藏大臣이 定하는바에 依하야 金又는 國債에運用하고 日銀으로 하야금이것을取扱케함

一、兌換銀行券條例第二條第五項의 借入資金及 日銀金買入法第四條의 債務는 本會計의負擔으로함

產金法案要綱

大藏商工兩省共管의 產金法案은 二十八日閣議에서 決定되어 二十九日衆議院에 提出되엿는데 法律案要綱은 如左하다

一、含金鑛物、砂金又는精鍊의過程에잇는 含金物(以下含金鑛產物이라고總稱함)을 取得한者는 이것을金地金으로 精鍊하야 政府에賣却하고 又는이것을 金精鍊業者或은 買入하는者에게 賣却할것 但命令으로써 特例와 含金鑛產物의 範圍를定할것

二、政府는 必要타고 認할時는 金委員會의 議를經하야 含金鑛產物을 取得한者에게 對하야 이것을 政府의 指定하는者에게 賣却할것을 命할수잇슴

三、業으로서 金의精鍊을하고저하는者는 政府의 許可를 受할것 業으로서 含金鑛產物의 買入을하고저하는者도 亦同

四、金精鍊業者는 事業計畫을 定하고 이것을 變更코저할時도가 政府에 届出할것

五、政府는 必要타고 認할時는 金委員會의 議를經하야 金精鍊業者에게 對하야 事業計畫의 變更을 命할수잇슴

六、金鑛을 目的으로하는 鑛業權者及 砂金鑛業者(以下金鑛業者라고總稱함)는 事業計畫을 定하고 이것을 變更코저할時도가 政府에届出할것

七、政府는 產金의 增加를 圖키爲하야 必要타고 認할時는 金委員會의 議를經하야 金鑛業者에게 對하야 探鑛、採鑛、探取或은選鑛에 對하야 設備의 擴張改良其他必要한 施行을 命할수잇슴

八、政府는 金委員會의 議를經하야 必要타고 認할時는 金鑛業者、金精鍊業者又는 含金鑛產物의 買入을하는者에게 對하야 그業務及財產狀況에 關하야 報告를 命할수잇슴

九、政府는 金鑛業者 金精鍊業者及 含金鑛產物의 買入을 하는者에게 對하야 含金鑛產物의 取引에 關하야 必要한 事項을 命할수잇슴

十、政府는 必要타고 認할時는 金委員會의 議를經하야 金鑛業者又는 金精鍊業者에 對하야 金의 使用制限其他金의 使用에 關하야 必要한 命令을 할수잇슴

十一、政府는 金貨幣、金地金又는金을 主로한 材料로하는것의 取得、處分又는 保有에 關하야 報告를 徵하고 또는 檢查할수잇슴

十二、金鑛業者又는 金精鍊業者가 그事業을爲하야 機械其他材料를 必要한때는 政府認可를 得할것

十三、政府는 金鑛業者及 金精鍊業者에게 對하야 豫算의 定하는範圍內에서 獎勵金을 交付할수잇슴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五年間施行함

金委員會組織

金의 強制買上과 產金獎勵를 目的으로하는 產金法案에 依하야 提出되고 政府는 同法에 依하야 金委員會를 設置키로되엿는데 同委員會는 大藏、商工省이 中心이되고 日本銀行等의 產金關係에 有識者로서 組織하리라한다

產金은朝鮮이宗家
資金流入에努力
重工、精工業積極誘致
殖產局長歸任談

中央經濟會議에出席하얏든 穗積殖產局長은 產金獎勵、茂山開發等에對하야 中央當局과 折衝키爲하야 渡東中이든바 三十一日午前八時京城驛着列車로 歸任하야 如左히말하엿다

經濟會議는 다만 委員幹事의 會見程度로會議는 會議進行의準備에止하엿다 滿洲國을크게考慮하는同時에 朝鮮이라는것을 除外하여서는 아무것도안된다는認識이非常히노파젓다 이會議에서는 現在外地와 直接問題가 되어잇는 產業統制等의 具體的問題에는 觸치안키로되엿다 茂山開發은月餘의 製鐵所에關한 根本問題가 大藏、商工兩省間에 걸려잇섯는데 이것도解決하야 잘進捗되리라고생각한다 三菱의製鐵所도 이와併行하야 갈것으로생각한다 產金은 朝鮮이宗家이라는時代로 되어잇슴으로 總督府에서도크게할생각이다 來年度에는 產金獎勵、送電補助、鑛石探鑛補助、鑛山道路網 探鑛獎勵等 大大的으로 注力할터인데 三千萬圓의 補助를한다드래도 結局은 더莫大한資金이 必要하다 이資金은 日本內地에 求하여야겟슴으로議會가끗난後 日本內地資金의 流入에 努力하겟다 大藏省에서도 產金投資를 조타하니 民間에서 一大會社가 생기면 조타고생각한다 이것은 吉野商相도 大贊成이엿다 朝鮮은 常時 戰時體制下에잇는 로서는 더考慮할일이 만히잇다 第一로重工業의誘致、第二로 精工業의 建設이런것은現下情勢에 鑑하야 朝鮮에만드러야할것이오 지금그機運이動하고잇는곳이다 다만朝鮮에는아직그素地가 업슴으로 此等에잇서서殖產局의使命은 重大하다

產金法委員 朝鮮에는不置

目下特別議會에提出中인 政府產金法案에依하면 그圓滑한運用을期키爲하야 委員會를設置키로 되엇는데 朝鮮은重要產業統制法 石油業法施行의境遇와가티 새로이委員會를設지안코 朝鮮總督의 權限으로 이것을 運用하고잇는 事例에鑑하야 今回도 委員會는 設치안을方針을 決定하얏다한다

米新運賃八月一日實施
京濱向五圓引上決定

米運賃은 八月一日부터三十圓을 京濱向朝鮮間 運賃은 目下齊藤殺驛幹事長이 渡東하야 京濱荷主와 協議키로 되엇지만 京濱荷主는 阪神과의 賃開十五圓(五圓引上)을 이미 承認하고 잇슴으로 運賃着拂의 現狀에鑑하야 關係船會社와京濱移入商과의 協議 結果 朝鮮荷主의意向如何에 不拘하고 八月一日부터 賃開五圓引上 西朝鮮 京濱間運賃百十圓을 實施키로 되엇다

米運賃은 八月一日부터三十圓引上인 阪神西朝鮮間基準運賃九十五圓을 實施키로되엇는데 問題의 京濱西朝鮮間 運賃은 目下 齋藤殺驛幹事長이 渡東하야 京濱荷主와 協議키로 되엇지만 ……이에對하야 如何한 態度로나올지가 注目된다한다

日本內地荷主가 運賃着拂을通告

米運賃의 現着拂問題는 兩地荷主間의懸案으로서 紛爭中에關하고 目下大阪에가잇는 齊藤殺驛幹事長은 이問題에對하야 日本內地荷主와 折衝中인데 日本米穀移入商組合과 大阪米穀會는 三十日會員、組合員全部에게 對하야

一、朝鮮米運賃은 着拂로함

二、運賃의現拂貨物은 受渡를拒否함

이라는旨를 通告하고 實行키로하엿다한다

鐵類輸出禁止 上海稅關에서

【上海三十一日發同盟】上海稅關은三十一日附로서 銑鐵、鐵塊、鐵輪、鐵棒、鐵板等內外製品 不問하고 滿洲國及大連을包含한外國에의輸出을禁止한다는旨를布告하얏다

此分配計算如左

▲金四十萬圓缺損補塡準備金▲十萬圓配當平均準備金 ▲金九萬五千圓役員賞與金及交際費 ▲金四十五萬圓舊株配當金(年九分)▲金六十七萬五千圓新株配當金(年九分)▲金十萬圓特別積立金 ▲金一百三十二萬四千七百八十八圓一錢後期繰越金

殖銀純益金 百九十三萬圓

殖銀에서는 八月十四日午前十時부터 同行會議室에서 第卅八回定時株主總會를 開코저 卅九日 株主通知狀을 發하얏는데 附議事項及 利益金處分案은 如左하다

▲一千九百十七萬二千六百八十三錢 當期總益金 ▲一千七百二十六萬九千四百十六圓九十七錢當期總損金 ▲一百九十萬三千二百六十五圓六十三錢 當期純益金 ▲一百二十二萬一千五百二十二圓二十八錢 前期繰越金 ▲計三百十二萬四千七百八十八圓一錢

東銀庶務課職制變更

鮮銀元國庫課長 栗原卯三郎氏는 卅一日付로 東銀庶務課長에 任命된同時에 庶務課의組織을變更하야 從來秘書室에서取扱하든 人事其他一般重要事務를 新設하고 이에移屬케하얏는데 庶務課에는 左記四係로난우엇다 秘書係、庶務係、用度係、監定係

四千圓이되엇다 이에依하야 兌換發行은 七千三百六十一萬一千圓을 增加하야 十五億八千六百三十二萬八千圓으로 膨脹되고 限外는九千八百六萬圓에達하얏다

日銀限外發行激增

【東京電話同盟】三十一日에繰越된 日銀帳面末에依하면 預金은 一千百十四萬八千圓을 減하야一億七千三百六十九萬八千圓이되고 貸出은五千八百九十一萬一千圓을 急增하야 六億二千二百六十四萬

寸鐵

○朝鮮의金鑛業이란 一擧千金의投機로만 알든것은 옛날일

○지금은 바야흐로 產金國策下에 堅實한事業일때

○朝鮮은 產金의宗家란말은殖產局長이 말안해도 事實인것

○有馬農相 現肥料政策에대단히 不滿인모양 通常議會에는 肥料國營案이 나올形勢이라나

○벼찬일이지만『農相言則是也』

非合同運送業者
計算會社를增資
三十一日府民館에서協議

朝鮮의 小運送統制 完成의實施를 압두고 非合同運送業者는 그對策을硏究中인데 運輸計算機關의 强化를 圖하여 이에對處키로 意見이 一致되여 그方法으로서 現在의 非合同運送業者의計算機關인 丸計鮮滿運輸計算會社(資本金四十萬圓)의變態增資를하기로決定하얏다 그리하야 卅一日午前十一時부터 府民館에서 第二丸計鮮滿運輸計算會社(資本金卅萬圓)의創立總會를開하고야決定 法定期間의到來를待하야 兩社合併資本金 七十萬圓의 會社로하기로되엇다한다

議事項及 利益金處分案은 如左하다(單位圓)

一、第卅八期諸決算案承認件

二、同上利益金分配案議決件

三、理事二人選任에對하야 候補者四人選擧件

四、退任理事에게 慰勞金贈呈件

下旬貿易入超

【東京電】七月下旬의 對外貿易은(單位千圓)

輸出	一二三、三〇二
輸入	一三六、八九六
入超	一三、五九四
一月以降累計出超	一七〇、一九八
入超	七二〇、三二一

江界水力의 投資一億圓
東拓、電工이折半出資

問題의 江界水力認可에 依하야 東拓、森系合作의 水電開發及化學工業計畫은 具體的으로 進行케되어 右建設에 要할 約一億圓의投資는 자못注目되는데 右에對하야 東拓及電工兩社間에 折半出資의 諒解가 成立되엿다하다 電力은 主로서 東拓이 化學工業은 電工이 管掌키로되엇다한다

◇水電開發=資本金五千萬圓의新會社를 創立할터인데 東拓이 四千萬圓을 出資하고 森系는 一千萬圓

◇化學工業=水電會社는 約一年遲延될터인데 資本金五千萬圓으로 이것은森系가 四千萬圓을出資하고 東拓은一千萬圓을 出資한다

週間大勢

株式

前週에現地協定成立을 傳하야 同復步調를 보엿든 株式은 去日曜日을끼고 再次 惡化한 北支事變으로 人氣에 動搖를 與하야 騰勢는 俄然挫折되여 다시 反落하고말엇다。그러나 反落步調中에서도 事變發生當初와가튼 恐怖的人氣는업고 平靜한中에 形勢를 觀望하는 態度를 取하야 市勢도 一押程度에 不過하엿고 大幅瓦落은 업섯다。週末에이르러 南京側의 積極抗事說로 嫌氣를불러 警戒는 嚴重한中에 市勢도 低迷狀態를 보이게되엿는데 時局으로보면 아직은 前途悲觀가 極困難하므로 安心買할수업는것만큼 仕手도 積極態度에 나서지안허 急速한 回復은 至難視되나 一方으로는 大衆이 모두 時局을 觀하려는 傾向에 기울고잇는 反面에 仕手 或은 有力側은 買人氣로 示現하는 低價는 언제나 買拾해두는 모양이므로 이러한 取組關係로는 또 低落도 新東일것갓다。이에 硬派는 不遠 大反撥을 期待하고 派는 八月中의 大反落을 說하는等 意見이 區區不一한데、解決의 遲延、事件의 擴大라도 잇다면 嫌氣를불러 或은 超常的市勢를 展開할지도 모르나 低迷中에서도 底意는 頑强한步調를보면 大體로 大崩落은 업슬것갓고 時局에따라 一高一低의 揉合으로 低價鍛鍊을 격거 伸力을 培養한다음 어느機會에 接하야 大反撥을 示現할것이아닌가하는說이 有力하다。다만重要商品의 低調만은 軟材로할수박게업슬것이다。

期米

前週와 마찬가지로 時局에 左右되어 漸次惡化한 時局으로 人氣는 不安하엿고 經濟統制도 이어 大幅反落을 보이는데 前途를 豫測할것갓다。八月限은 東京、大阪에 比하야 堅調로 ... 米價가 不可避할것이다。

正米

今後의 市勢는 時局의 推移에 따라 ... 米價는 大體로九月限까지 反落을 보일것이라는 말도잇다。

生絲

時局不安의 擴大로 人氣가 混迷化함에 따라 有力側의 總退却을 보게되고 軟派의 賣叩도 잇서 市勢는 漸次惡化하야 先限은 마츰내 八百圓大臺를 보이게되엿는데 當限은 現實事情에 끌려서 意外로 堅調이 納會되엇스며 低價突込도 警戒되고잇스나 海外도 不落狀이며 무엇보담 時局에依한 環境의 動搖로 目前은 急遽回復은 極難하다。그러나 今日에잇서서 入荷는 增加되고 內外實需不振으로 實需는 漸次 ...

綿絲

事變으로 惡化한 市勢는 雪上加霜으로 米棉이 十數日동안 連日暴落을 繼續하야 先物은 千一仙臺를 보이게되엇다. 綿絲의 瓦落도 또한當然한일이다。米棉의 暴落은 大統領의 米棉八仙臺도 可能하리라는 一言으로 瓦落하기 始作햇다고하나 이는 天候良好에 다가 日本에의 輸出減少(爲替管理强化도)를 豫想하는等 材料도 複雜하나 米棉低에 追隨치 안홀수업는 以上 二百二十圓割인 二百十六圓七十錢을 示現한것도 無理한일이 아니다。그러나 人氣는 旺盛하고 實勢는 益益惡化하야 漸貨는 激增하는狀態이며 米棉도 一二日의 反撥로는 價位로보아서는 當도어느安心할수업는狀態

人絹

當先限七十圓臺를 割한 位로보아 突込은 警戒하엿스나 綿絲는 暴落을거듭하는等 環境은 惡化되고 滯貨는 山積하엿스니 前途는 樂觀이 라고說하나 現實悲觀을 掩蔽할 수는업슬것이다 週末에는 마츰 내大惡化로 先限은 六十七圓五十錢을 示現하엿는데 이로써 實勢는 說明치안코도알일이다。七十圓內外를 最低位로 이以下에 買어는 實勢는 窮迫하고 堅調이라할것은 업슬것이다。

株式 環境不良 漸落
今日의市勢【卅一日】

前場落潮 二十九日東播乘의 株는 蔣介石態度와 中央軍北上說도 解決遲延이 豫想되어 今朝에는 寄付부터 嫌氣裝乘로 軟調를 보여 東新一四四五、鐘新二六八、九로始歸하엿는데 投物은 不絕함뿐아니라 綿絲、人絹等重要商品의 暴落은 漸次人氣의 安定을깨틀여來日당시엇겟으면은 買安心할수업다하야 雜株로부터 崩落한것이 鐘新은 二百六十五

雜株一齊低落

時局은 商品에痛烈히反映하고 品低는 또雜株에影響하야 連日不斷續에잇는 雜株는今朝에도暴落으로 東洋工스三六、○으로一圓低、昭和人絹一圓低、東邦人造絹五低인三七、○等으로一圓二低、人造羊毛八低、東京人造工新의一圓低이며、帝國火藥의五低、工業株도落潮를맙고 日石新은一圓五低로下五、五唱이며 商船新도 一圓三低로三五、三 郵船新四三、五인 一圓低로 鮎帕株도 漸次不良하고 더라파이新八五低인一九、二五低 ...

商品低로嫌氣

北支事變의 解決遲延說도 一因이나 이時局과 其他의 環境事情으로 月末接近에 따라 重要商品은 모조리 大崩落을 告하고 三品은 二百十六圓臺를 示現하고 人絹은 六十七圓臺로 實叩되엿스며 生絲는 八百圓大臺割을演하는等 滋味스럽지못한場面을보이게 되엿스므로 이影響은 無言中에 株式에 미치어 紡績人絹株는 勿論、諸株가 一齊軟調를告하게된것이다 이時局과 이環境을 보아서는 樂觀할 餘地가업다는것이 賣氣側의 所說이오 또一般의 買人氣이나、이賣屋傾向이 도로혀 株式惡化를 防止할要因이 될지도 모르므로 事件의大惡化라도잇다면 몰라도그러치안는限은 底入도不遠한것으로볼수박게업서 深追는警戒되고잇다 그러나 警戒人氣解消까지에는 좀日字를 要할것을생각하면面買도尙早인듯하야 當分波瀾揉合을反復할것으로보인다 果如何?

國債 買氣萎縮 少弛

【東京電】時局重大化와 同時에 金融市場이 念慮되는 一面 株式界 商品界의 不勢로부터 買氣가 全혀 萎縮되어 內國債는 換金側의 賣物이 出現하야 大概五錢方少弛하고 佛貨債도 十五錢低가 되엇는데 米貨債는 六分半五錢 半共히 釘着이엇다

▲佛貨 一九五九〇

米期 反弛裡에 納會
前場反落 今朝는 兩盤相

半으로 阪地三十四圓十四錢인一目反落을 演하고 中은 二圓八十五錢인 昨日同樣으로 先限은 三十三圓十錢인 二丁反落으로 揚을始한後 阪地二節○三錢으로三節○八錢으로 小戾함을 伴하야 二節○四錢 三節○七錢의 小戾를 示하엿스나 阪地六節三圓九十錢의 突落을따라 九十一錢까지 下落하더니 結局阪止九十六錢을보고 九十九錢에 止揚하고 後場은 土曜로 例休이엇다

新甫發會豫想 百五十丁下鞘?

來八月二日에 發會할新甫十月限은 百五十丁下鞘로 發會될게이라는 豫想說이 有力한모양인데 十月부터는新米가되는만치 古米는 ...

颱風이또發生

南支那方面에 熱帶性低氣壓이 發生하야 ...

正米 京仁高나 保勢

京城强調 今日定期는 剩含이나 正米는 現狀維持로 十錢高를 示하엿다 商談은 月末關係로 皆無의 狀態이다 ㊀三等三三、五○ 四等三三、二○ 一等白米三四、五○

仁川堅調 期米는 軟調이나 品薄의 市場에는 影響이 업고 精米側의 積極賣氣配로 市價十錢高로 强調이엇다 ㊀穀良坊主三等三三、七○ 四等三三、二○ 銀坊主三等三三、五○ 四等三三、一○ ○多摩錦三等三三、三○ 四等三三、一○ 白米四三、七○ ㊀一三三、五○

釜山保合 東地의 市場實貨物이 割高視되어 買方의 買付치안키때문에 低價까지 放賣하나 精米側의 必要買以外는 모다買方이 沈默狀態이어서 市場은 閑散하다 ㊀三等三三、一○ 四

大邱不變 持米側의 賣氣가 여보이나 買氣不振인때라 今朝定期의 軟調로 賣氣는 鈍化되엿다 不逢하야 賣買停頓의 現狀이다 ㊀敬良三等 三三、六○ 四等三三、四○ 一等白米 一三、六五

群山軟調 月末模樣 賣行不振 하야 日本內地의 軟化氣勢에따라 今朝期米의 軟化로 保合으로 十銭低로 軟調를 告하엿다 ㊀ 銀坊主三等三三、一○ 四等三三、九○ 一等白米一四、○三

木浦不動 深刻한 實米不足으로 實盤이 全혀 社紹되市場이나 期米低도兼하야 新甫待로 實盤도업서 依然閑沈模樣이다 ㊀銀坊主三等三三、七○ 四等三三、四○ 一等白米一四、一五

各地下鞘豫想

▲大阪八○一九○下 ▲東京一一二○下 ▲神戶一○○下 ▲下關一○○下 ▲大邱一二○一一三○下 ▲仁川一一○下 ▲釜山一四○一一五○下 ▲群山一一三○下 ▲木浦一一二○下

新米에比하야 百丁格下로서 萬一十限물옷을 豫想할때에 古米로서 放出한다면 渡來方에 對하야 值百一圓의 우청을주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 發會된다하면 其實二의下鞘로 百五十丁이나 下鞘되는 세음이다 要하면 昨年同期는 凶作의 恐慌人氣가 濃厚하엿든만큼 百十三丁의 下鞘에不過하엿스나 今年은 目前의 現象으로 보아서 豐作을 否定할수업는 樂觀狀態이므로 百五十丁의 下鞘說이 近理할것갓다 中限을 三十一圓市勢로 假令하면 先限은 三十圓五十錢의 市勢이므로 南鮮側은 오히려 實餘地가 잇슬것으로 볼수잇스나 아즉天災가 重要한 今日에 잇서서 豐作推斷의 實質成은 時期尙早의 感이업지아니하다고 云云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市場小感

……時局은 不安이 繼續되고 商品低鈞 環境不良으로 賣方은 氣勢萬丈▲그러나 低落도 一週間을繼續하야 賣餘地는적고 低落一巡이라고 硬派는버티는모양▲小利에 滿足하고잇을때는아닐뿐도하다마는▲當分低迷는 모다認定하는러나 深追는禁物이 아니랴?▲大衆賣玉이 過重한것이 아모래도 不安스러운걸……(金剛城)

㊥……今朝는 東阪兩地로부터 低落의 飛報를傳하자 强硬하든當地市勢도 俄然崩▲前上天候로보아서는 足히 買安心할수도잇스나 北支事變이 解決되지안는만큼 大瓦落은期待難▲新甫十月限은 五十丁의 大下鞘로 發會될것이고 그러면 十十丁乃至四、五十丁의 下鞘는 豫期할수잇다▲比律賓海上에는 또颱風이 發生하엿다고 그進路는어데로? ▲來月부터는 颱風이나기 始作할모양이니 買安心할수업는 時期(華山)

今日財界【卅一日】

◆米(單位錢)

仁川正米先限 三○九 三一八

大阪期米先限 三三○ 三二八

大阪三等米一石 三二八 三三○

正米(京城) 百キロ 一

白米(仁川)一等 四四八

京城 一斤 八

一斤價三等 不變

五百錢(利) 一三○

고무(神戶) 天城 一

◆株

鐘新 一三四 二六五

東新 一四○ 一四五

繭 二四 一

綿絲 一三九 三一○

◆商品

人絹 三一八 六七○

棉花 六二五 二二九

砂糖

明米 益 康益夏 仁川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3939 1572 代金引換販賣酬應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

京城物價【卅一日】

▲白米(庇、單位錢)
多摩錦特 二七○ 一等 二六○

▲麥粉(三斤、單位錢)
二〇四、八〇 카메리야 七八〇

▲肥料(一〇貫、單位錢)
硫安(各驛渡) 三、七〇
過燐酸石灰 同 三、〇五
豆粕(安東現一등)枚 二、五〇

▲紙物(單位厘)
A模造紙(斤) 二三七
中質印刷紙(同) 二二七
牛皮紙因州手四貫四〇、〇〇
朝鮮改造紙(塊)二三〇、〇〇
洋紫紙(全州一枚) 四五〇

▲燃料(連、單位錢)
撫順石炭 塊 一九、二〇
煉炭二六 二二、九〇
京鐵煉炭不炭一等(二〇塊) 一、四五

▲洋灰(五〇瓩袋、單位錢)
小野田 一、〇八 淺野 一、〇八

▲砂糖(百斤、單位錢)
白 二三、八〇 黑 一四、五〇
分蜜 一九、二〇

▲鐵物(單位錢)
亞鉛引平板米門(枚) 一、一三
丸釘 一吋(樽) 一七、四〇
鐵線六番(一〇貫) 六、六〇
丸鐵二分(同) 九、三〇

▲海産物(單位錢)
乾明太(駄) 五、〇〇
乾大口魚(斤) 一、二四
鹽고등어(手) 一、一五
곽기미역(手) 一、五〇

▲藥材(斤、單位錢)
人蔘 三、〇〇 黃三、七〇
紅蔘 三、七〇 尾一、六〇

▲塗料(單位錢)
白페인트(一至五)卵A(二斤半) 八、九〇

▲木材(才、單位錢)
에나멜(實灰色)(才) 一、二〇
와니스白果(一斤) 一、三〇
杉材(實送) 一、一三五
赤桃松 一、一七
紅松材 一、一六
라완 一、三五

▲木綿(疋、單位錢)
毛本緞 一〇、〇〇
文化紗 二二、〇〇
眞珠紗 一一、〇〇

▲人絹(碼、單位錢)
眞珠紗 一、一〇

▲毛絲(封度、單位錢)
極細ZC 二二、五〇

▲牛皮(乾百斤、單位錢)
京大皮 八五、〇〇
小皮 一等 八五、〇〇
中皮 七七、〇〇
同 六七、〇〇

海外經濟 卅日

銀行券 卅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紡織製品 ◆京城綿系布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株式

◆朝取短期 ◆短期主要取組高 ◆算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綿絲 ◆大阪綿系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生絲 ◆橫濱生系